

역·사·자·료·집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목2동 역사편찬위원회



내 고장 양천은 아름다운 고장



광복 70년에 즈음하여 우리 목2동의 역사 서적을 편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고장의 역사와 문화가 모여 한 나라의 국사가 되고, 한 국가의 문화와 역사가 인류 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고 볼 때, 오늘날 우리 삶의 흔적을 기록하여 책으로 펴내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의 흔적인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가꾸고 보존하지 못하면 인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 양천은 '밝은 태양이 비치고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용왕산이 마을 한쪽에 솟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마을 한쪽으로 안양천이 흘러 풍요로운 젖줄 역할을 하는 곳, 해방 후에는 시원하게 공항로가 뚫려 서울과 김포공항을 이어 주는 연결로 역할을 했으며, 강화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곳 목동(월촌), 월촌 부락(현재의 목2동)은 391년 전 본인의 조상이 정착하여 대대로 살아온 곳이며, 본인 또한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면서 이제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편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고장 조상님들의 삶의 흔적과 소중한 얼을 보존, 계승하고 그 아름다움과 전통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어 가고자 애항심을 갖고 뜻을 같이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목2동 역사 서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역사 소재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 편집위원님, 추진위원님, 그리고 김종신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장 이길훈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하고, 참여로 견고해지는 마을

지난해 우리 구 자매도시인 호주뱅크스타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 16만의 작은 도시지만 많은 것을 둘러보고 많은 것을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중 공공도서관에 들렀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역사관이 도서관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더군요. 사진, 슬라이드, 유물 등 다양한 전시품이 있었습니다. 뱅크스타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그 장소가 참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희망찬 새해에 들은 목2동 역사 서적 발간 소식에 뱅크스타운의 기억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오래 전부터 함께해 온 이웃이 많아 정이 오고가는 따뜻한 곳, 종종 들려오는 마을 소식이 듣는 이들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드는 목2동은 그날의 역사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을 감명 깊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 또한 무척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2동 역사서적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책 발간 소식에 참 반가웠습니다.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2동 이웃들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겠지요. 주민들의 힘으로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요, 또 마을공동체의 힘이겠지요. 이 소중한 책에는 목2동의 역사는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 속 추억들이 담긴 책을 보며 많은 분들이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귀한 자료와 소중한 추억으로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편찬위원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난 한 해 양천구는 더욱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그런 목2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늘 주민과 소통하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양천구청장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애정에 감사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의장 심광식입니다.

양천구 목2동의 역사를 집대성한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목2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이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한 배움'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는 목동 지역을 넘어 양천의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대화의 통로로 양천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 속에서 숨 쉬고 오래도록 기억될 이러한 중요한 자료 발간에 힘써 주신 목2동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목2동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양천구의회 의장 심 광 식

뿌리 깊은 나무, 목2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길정우입니다. 먼저,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열정과 봉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목2동 역사서적 편찬위원회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목2동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산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 목2동의 뿌리와 그동안 목2동이 온몸으로 겪어 낸 변화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원로들께서 전하는 생생한 옛이야기는 자칫 기억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목2동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기록으로 남기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 후대에 전달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데 의미 있는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튼튼한 집이 되기 위한 요건은 두말할 것 없이 기초공사입니다. 목2동은 양천의 기둥과도 같은 곳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역사문화서적 발간을 계기로 목2동이 양천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5월

국회의원 길 정 우

우리 마을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자세

지난해 목2동의 마을 역사를 담은 책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제 정말 책자로 엮여져서 나온다니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목2동 역사서적 편찬위원님들과 실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축하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찰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의 역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반추한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을이 발전하기를 바라면서도 마을이 지나온 발자취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역 발전의 상이 불분명한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마을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향한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2동의 마을 역사를 담은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서적은 마을 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마을 역사책 발간을 계기로 주민들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가슴 뿌듯하고 희망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목2동을 넘어 양천 전체에 널리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목2동 역사서적 발간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국회의원 김 기 준

목2동의 변화를 보여 주는 책

일 년여 만에 한 개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목2동만의 책을 출간하게 되니,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고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목2동이 옛 마을 형태가 많이 남아 있고 주민들끼리도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는데, 교통의 발달에 따라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마을이 개발되면서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2동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발의되면서 책 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뜻을 같이하는 마을 원로들로 구성된 역사서적 편찬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책 발간에 필요한 경비뿐 아니라 마을의 변화상을 반영한 사진 등 자료를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과거의 마을 모습을 그려 주셨습니다. 실무위원들 또한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맡아 주셨습니다.

목2동 역사 서적을 발간하는 데 앞장서 주신 이길훈 편찬위원장님, 김종신 동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님들, 실무위원님들께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그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많은 주민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목2동 역사와 문화'가 수록된 책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2016년 5월
목2동 제8기 주민자치위원장 최 영 철

CONTENTS

INTRO

발간사	내 고향 양천은 아름다운 고향 이길훈	04
축사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하고, 참여로 견고해지는 마을 양천구청장	06
축사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애정에 감사 양천구의회 의장 심광식	08
축사	뿌리 깊은 나무, 목2동 국회의원 길정우	09
축사	우리 마을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자세 국회의원 김기준	10
축사	목2동의 변화를 보여 주는 책 주민자치위원장 최영철	11

목2동, 어떤 곳인가?	16
목2동의 발자취	18

PART 01

명소와 유적지

목동 벌에 우뚝 선, 용왕산	38
유서 깊은 조망 명소, 용왕정	40
주민들의 쉼터, 달거리 약수터	41
호랑이 모양의 바위, 봉바위	42
도심 사찰 본각사와 효험 좋은 우물	43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 안양천	44
도심의 생태 쉼터, 달마을 근린공원	45
주거지에 위치한, 목동 도심 소공원	46
한강변의 한적한 정자, 이수정	47
작은나루깨다리, 양화교- 철곶포(鐵串浦) 자리	48
시원스레 뻗어 있는 공항로	49
아름다운 첫인상의, 양화교 인공폭포	50
옛사람들의 삶의 애환 깃든, 연자방아	50

PART 02

기억 속 그때 그곳

PART 03

전설과 옛이야기

PART 04

다양한 문화 행사

마을을 지키는 마을나무, 향나무	51
선교의 꽃, 박순신 선생 추모비	52
옛 모습을 간직한 추억의 골목길	53

행정을 맡아 보던 양동면사무소	56
홍수 막고 논을 만든 양동토지개발조합	57
통신을 도맡았던 양서·화곡우체국	58
주민들과 고락 같이 한 서울도시가스	59
그 옛날의 국민학교들	60

왕이 되지 못한 용왕산의 용	64
오목내와 오목교	66
세종대왕이 머물다 간 철곶포	68
양천 논이 쇠 궁둥이 돌려 대듯	70
양천 원님은 부임할 때 울고, 나갈 때 운다	72
천 호의 집이 들어설 곳이로대!	73

양천의 새해를 여는 용왕산 해맞이	76
안양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77
목2동에서 행해진 민속놀이 및 풍속	78
50만 구민이 하나 되는 양천구민의 날	80
경로 효친 시상 고취하는 경로잔치	80
화합과 축제의 장, 동민 체육대회	81
여름나기 기원, 어르신 삼계탕 대접	81
아름다운 마을 축제, 모기동 축제	82
마을 예술 잔치, 영진목욕탕 작품전시회	83

PART 05

내 고장 인물

교육과 복지에 헌신한, 박순신 선생	86
제7대 대법원장, 이영섭	87
피의 능선 전투의 주역, 황 열	88
전 헌법위원회 상임위원, 이영환	88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민병돈	89
전 양천구청장, 이훈구	89
목2동 월촌 부락의 토착 성씨들	90

PART 06

마을 원로들의 생생한 옛이야기

다섯 마을이 있어서 오목동 나중선	94
덕수 이씨 월촌 양반이 정착한 땅 박홍득	96
정 깊은 사람들이 나누며 살던 마을 이명인	98
엄지마는 따뜻한 마을 최영태	100
통장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봉사 유성고	101
어려운 분들이 이사와 부자 된 마을, 엄지미 이응환	102
부녀회 교육 받고 후기로 일등상 받아 이태인	104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활동해 최영철	105
목2동은 조용하고 이늑한 마을 양경석	106
몇 차례에 걸쳐 확장된 공항로 이중영	107
6.25의 아픈 역사도 체험해 엄병호	108
한번 정착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 황영주	110
영진목욕탕이 마을의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강의순	111
세찬계도 하고, 날뛰기도 하고 신영자	112
헤드스타트 이념 도입해 개원한 다솜어린이집 한경애	114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성문교회 한용권	116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땅 최영우	117
제2국민병으로 부산까지 갔다 오기도 이윤구	118
신익의 열정, 기다림으로 마을 위해 일해 이훈구	120

PART 07

목2동의 기관 및 시설

전쟁에도 멀쩡했던 우리 마을 이길훈	122
건축일 하며 마을 위해 활동해 김영진	124
토박이는 아니지만 애착 가는 마을 이종덕	126
달거리 경로당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추억	
달거리 경로당 이용어르신들	128
통장 일 하며 마을 사정 속속들이 알게 돼 정정기	130
봉바우에 얽힌 즐거웠던 추억들 나중복	132
35년간 한자리에서 마을의 변화 목도 이중관	133
봉사로 지역 일을 시작해 이영옥	134
나누고 채우며 더불어 살아온 삶의 터전 한규대	136
환한 웃음으로 즐겁게 사는 곳 새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138

공공기관	142
목2동주민센터, 목2지구대, 목2치안센터	
교육시설	148
양화초등학교, 구립 다솜어린이집, 구립 도담 어린이집, 지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시설	153
달마을 작은도서관, 목동문화체육센터,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주민편의시설	156
목동새마을금고 본점, 영진 목욕탕, 달거리 경로당, 월촌공영주차장, 목2동 전통시장, 지하철 9호선 영창역과 신목동역,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기타 시설	164
양화빛물펌프장, 성문교회, 목동감리교회, 지역내 금융기관, 의약업소	

목2동, 어떤 곳인가?

목 2동은 북쪽으로는 공항로를 경계로 강서구 염창동과, 동쪽으로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영등포구와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양천구 전체 면적의 5.91%에 해당하는 1.03km²의 면적에 2015년 12월 현재 12,325세대 31,439여 명의 인구(남 15,430명, 여 16,009명)가 모여 살아가고 있다.

주택은 총 9,367호로, 일반 주택 3,230호, 아파트 2,816호, 연립 주택 3,321호가 아름다운 용왕산 자락에 어우러져 자리 잡아 다채롭고 풍성한 경관을 이루어 내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주변은 역세권 발전이 기대되는 주거지역으로, 2014년 초 건축제한구역에서 해제 되자, 염창역과 신목동역 주변을 중심으로 기존의 단독 주택을 허물고 빌라형 및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30대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목2동은 대를 이어 살아 온 토박이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월촌부락에 정착한 어르신들은 그 옛날 논밭을 가꾸며 살던 마을 이야기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시다.

【목2동의 연령별 인구 분포】

0세~9세 (7.2%)		10세~19세 (10.9%)		20세~29세 (15.9%)		30세~39세 (17.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101	1,156	1,873	1,556	2,513	2,494	2,821	2,819

40세~49세 (16.4%)		50세~59세 (16.7%)		60세~69세 (8.9%)		70세 이상 (6.1%)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411	2,729	2,592	2,655	1,362	1,445	757	1,155



목2동 전경

'목동'이라는 이름의 유래

옛날 목동 지역은 갈대밭으로, 걸핏하면 물에 잠겨 버리는 쓸모없는 땅이었으며, 옷자란 목초를 이용한 말의 방목 장소였다. 이 때문에 목장 안쪽의 마을을 나말, 혹은 안말, 안마장 또는 내목동이라고 불렀다. 목동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살았으므로 목동(牧洞)이라 했는데, 후에 나무 목(木)자로 바뀌었다.

흔히 목동산이라 부르는 높이 78m의 용왕산을 중심으로 그 북쪽과 서쪽을 외목동 혹은 모세미라 하였고, 바로 옆의 높이 68m의 산을 마장산이라 불렀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들판에 풀어놓은 말이 어디쯤 있는지 훤히 내다볼 수 있으므로 수목동(首牧童)만 올라갔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용왕산은 암목동 혹은 안목동이라 불러 예부터 이 두 산 남쪽을 말의 생산지로 손꼽아 왔다.

'천호지벌' 예견된 곳

목동1, 2단지에는 '천호지벌'이라 불렀는데, 앞으로 수천 호의 집들이 들어설 것이라는 예견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걸핏하면 침수되던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곳 벌판에 수많은 집들이 세워진다는 예견에 사람들은 대부분 전설 같은 이야기라며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한 풍수가들이 많았다고 한다.

목2동의 발자취

고대

상고시대에 이 지역은 삼한(三韓) 중의 하나인 마한(馬韓) 지역이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한수(漢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땅을 뺏고 빼앗기며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북방의 고구려가 강성하여 지금의 경기도 땅을 차지하고 남평양(南平壤)이라 하여 한수 북쪽에 한양 고을을 두고, 그에 금포(黔浦), 제차파의(齊次巴衣-옛 양천), 평회압(平淮押), 동자홀(童子忽), 수이홀현(首爾忽懸)의 5개 현을 두었다.

양천의 뿌리는 바로 이때의 '제차파의 현(齊次巴衣縣)'이라 할 수 있다. 제차파의는 '한수 하류에 빈강(濱江)한 소읍'이라 하였으니 곧 강을 끼고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통일신라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고 통일신라를 이루어 나라를 구(九)개 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남평양을 한주(漢州)라 하고, 제차파의를 속현으로 두었다.

757년(경덕왕 16년)에 제차파의를 공암(孔岩-양천의 고호)이라 고치고, 굴포는 지금 이름인 김포현으로 고쳐 울진군(栗津郡-시흥군의 고호)의 속현을 삼았고, 다른 3현도 함께 장제현(長堤懸-부천시)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은 수도를 개성으로 옮긴 후 940년(태조 23)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성종대에도 지방관제의 개편이 있었으나, 양천 지역의 변화는 없었으며, 제양(齊陽)·파릉(巴陵)·양평(陽平) 등의 별칭으로 불렸다. 단지 상위 행정 관제의 변화가 있었으니, 983년(성종 2)에 전국을 12주로 나눔에 따라 광주(廣州)에, 995년(성종 14)에 10개도(道)로 나눌 때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완전한 중앙집권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행정제도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관내도는 이후 행정구역 변동에 따라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 양광도(楊廣道) 등으로



《동국여지승람》 중의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조선 후기 서울 주변을 상세하게 그린 상업지도로, 한강 주변의 마을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시한 부분이 일한 지역이다.

변경되었다. 고려 시대에 다시 행정구역을 크게 변경한 것은 현종대에 이르러서였다. 1018년(현종 9)에 오도양계, 4도호부, 8목, 56지주군사, 28영장, 20현령을 설치하였다가, 곧 56지주군사 이하를 15부, 129군, 335현, 29진으로 개편함으로써 목·부·군·현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공암현은 1018년에 수주(樹州, 지금의 부평)의 속현이 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 양천현(陽川縣)으로 개칭되고 현령(縣令)을 둬으로써 독립하였으며, 이러한 행정 체계는 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조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제일차로 시행한 일은 행정구역의 조정이었다. 1394년(태조 3) 6월 23일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었으며, 양천은 경기좌도에 소속되었다.

양천에는 종5품의 현령(縣令)이 파견되어 고장을 다스렸다. 조선 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지역간에 차등을 두어 품계를 달리하였다. 한양이나 개성과 같이 종2품의 유수(留守)가 파견되는 유수부가 가장 품계가 높은 지방행정구역이었으며, 각 도에는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 아래

부·목·군·현의 지방행정구역이 위계에 따라 분포하였다. 품계의 차이를 둔 것은 각 지역의 인구와 토지 면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종속관계는 아니었으며 동등한 자격으로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1414년(태종 14)에 작은 군현들을 통폐합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김포(金浦)·양천(陽川)을 병합하여 금양(金陽)으로 하였으나, 1달여 후에 과천에 붙었던 금천(衿川)을 양천(陽川)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였으며, 양천과 통합하였던 김포(金浦)는 부평(富平)에 붙여 통합하였다.

2년 후인 1416년(태종 16)에는 합병한 군현(郡縣)을 다시 양천(陽川)과 금천(衿川)으로 나누어 원래대로 복구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정비된 지방행정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에 걸쳐 지방단위의 군사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제도(諸道)의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였는데,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교동은 강화진(江華鎭)에 속하였다.

조선이 지방제도의 틀을 크게 개혁한 것은 1894년부터 시작한 갑오개혁의 하나로 1895년에 실시한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서였다. 종래의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팔도제를 없애고 전국을 23개의 부(府)로 나누어 전국 337개의 군(郡)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또 여러 단계의 품계로 위계를 이루고 있던 유수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군으로 획일화하였다. 양천현은 이때 양천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인천부가 관할하는 12개 군의 하나가 되었다. 5개월 후에는 군의 면적, 인구, 토지 면적의 다과에 따라 군을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양천군은 5등급에 속하였다.

1896년에 다시 지방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3부제를 1년 만에 폐지하고, 1부(府) 13도제(道制)를 실시하였다. 한성부를 특별구역으로 독립시키고, 조선 시대의 팔도 가운데 면적이 넓고 군의 수가 많은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였으며, 경기도·황해도·강원도는 그대로 두었다. 양천군은 경기도의 관할이 되었으며, 종전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승격되었다.

1789년(정조 13)에 기록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양천현의 인구는 총 5면 35리에 802호 2,793구이며, 이 중 남자 1,415구, 여자 1,378구이다. 1면당 호수는 160.4호 인구는 558.6구이며, 1리당 호수는 22.9호 인구는 79.8구이다. 또한 양천현에는 5개 면이 있으며 지금의 양천구에 해당하는 면은 남산면(南山面)과 장군소면(將軍所面)이다. 남산면에는 배촌리, 월촌리, 본동리, 능동리, 반곡리, 화곡리, 역리, 염창리, 양화도리가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목2동은 남산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8세기 후반에 남산면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

【「호구총수」(1789년)에 기록된 양천현 행정구역】

면 명	면 수	소 속 리 명
현내면(縣內面)	7	마곡리(麻谷里), 후포리(後浦里), 마당리(麻堂里), 향교동리(鄕校洞里), 고양리(古陽里), 성재정리(成才亭里), 공암리(孔岩里)
삼정면(三井面)	7	상사동리(相思洞里), 외부석리(外浮石里), 내부석리(內浮石里), 웅현리(雄峴里), 정곡리(井谷里), 도양리(道場里), 능리(陵里)
가곡면(加谷面)	7	과해리(果海里), 소율리(小粟里), 송정리(松亭里), 놀어리(訥語里), 외발산리(外鉢山里), 원당리(元堂里), 내발산리(內鉢山里)
남산면(南山面)	9	배촌리(背村里), 월촌리(月村里), 본동리(本洞里), 육동리(陸洞里), 반곡리(盤谷里), 화곡리(禾谷里), 역리(驛里), 염창리(鹽倉里), 양화도리(楊花渡里)
장군소면(將軍所面)	5	신월리(新月里), 고음리(古音里), 당동리(棠洞里), 은행정리(銀杏亭里), 신기리(新機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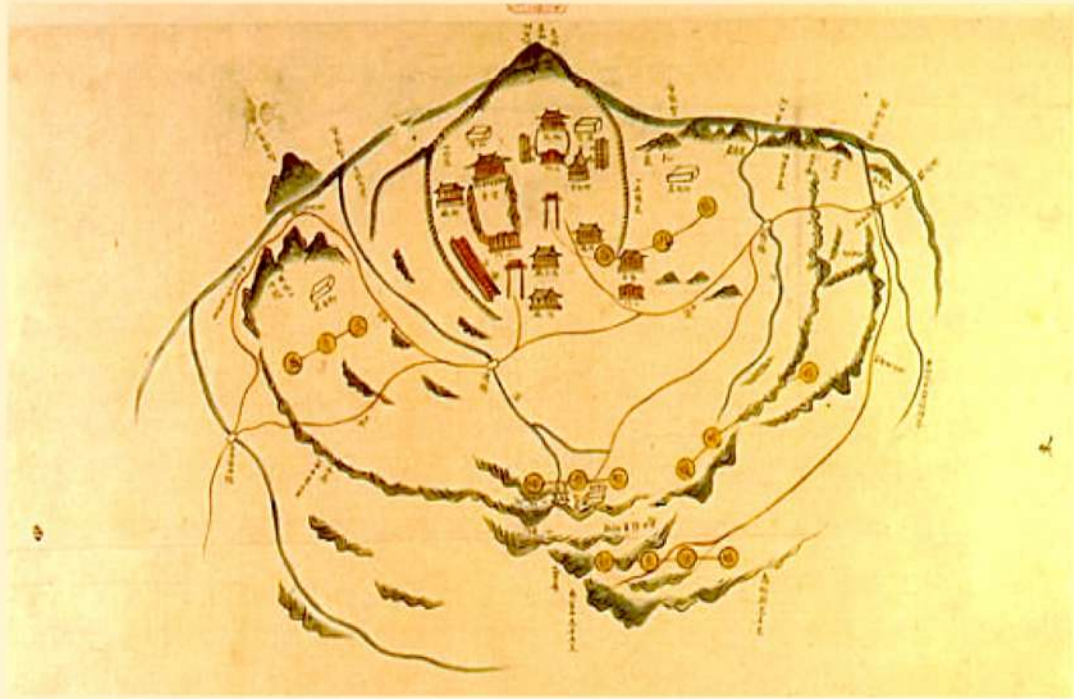
* 참고 : 양천구지 103쪽

【「호구총수」(1789년)에 기록된 양천현 면별 인구】

면 명	리 수	호 수	구 수	남 자	여 자
縣內面	7	142	412	215	197
三井面	7	172	502	261	241
加谷面	7	176	611	293	318
南山面	9	213	834	416	418
將軍所面	5	99	434	230	204

* 참고 : 양천구지 103쪽

【「양천현지도」(18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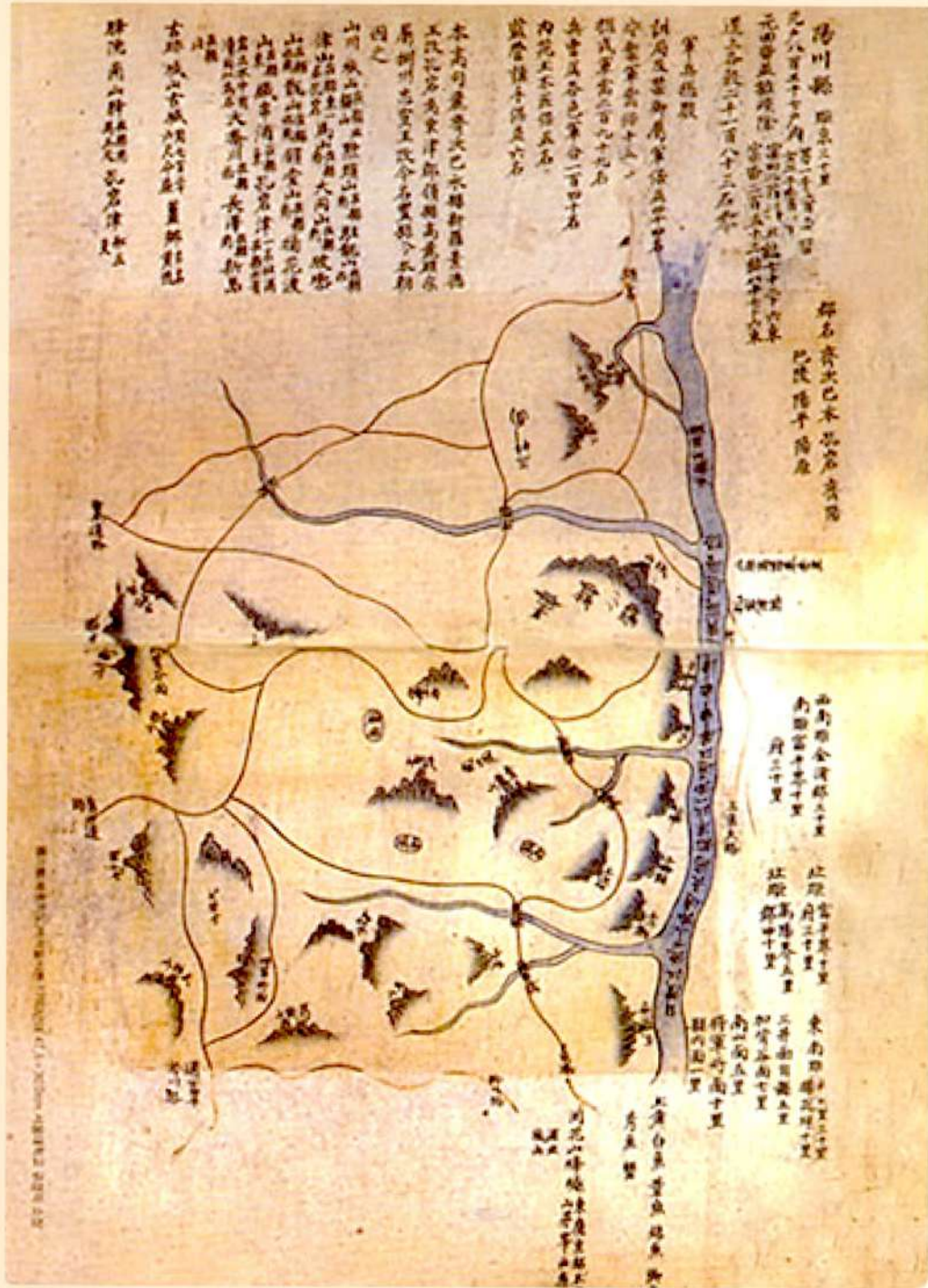
【「광여도」중 양천현 지도】



【「대동여지도」의 양천현 행정구역과 강화로】



【해동지도.중의 양천현 지도】



일제시대

1910년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일본은 조선의 전통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을 시도하여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14년에 전국적으로 지방제도 개편을 실시하였다. 지방제도 개편이 시행되기 전 양천군에는 군내면, 남산면, 장군소면, 가곡면, 삼정면 등 5개 면이 소속되어 있었고 남산면(南山面)에 임창리, 양화리, 화곡리, 등촌리, 목동(木洞)리가 있어 이것이 목동 지명의 뿌리가 되었다.

1914년의 지방제도 개편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군, 면, 리의 통폐합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전통적 생활권을 파괴하여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12부 317군을 12부 220개 군으로 폐지 통합하였다. 양천군도 이때 폐지되어 봉천군과 함께 김포군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양천군 내 5개 면 중 군내면, 남산면, 장군소면이 양동면으로, 가곡면, 삼정면이 양서면으로 통폐합되었다. 동시에 동리(洞里)의 통폐합도 이뤄져 가장 작은 말단의 행정구역까지도 변경되었다.

총 5개 면 37개 리로 구성되어 있던 양천군의 하위 행정구역은 2개 면 15리로 격감하였다. 당시 양동면의 목동리는 달거리(월촌), 모세미(외목동), 나말(내목동), 새말(신촌), 마장 등 5개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를 오목동(五木洞)으로 불렀다.

오목동(五木洞)

달거리(월촌) 용왕산 북동쪽에 형성된 마을로, 용왕산에 떠오르는 달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서, 또는 산 아래 마을이 마치 반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염창역에서 공영주차장 뒷길을 따라 효성아파트까지의 양화교 쪽을 바깥달거리라 하고, 그 반대쪽 양화초등학교 쪽을 안달거리라 하였다. 월촌초등학교와 월촌중학교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

모세미(외목동) 목동리의 끝 바깥쪽에 있었던 마을로, 현재 목동아파트 3단지 건너편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이다.

새말(신촌) 일제 강점기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새말, 한자로 신촌이라 하였다. 용왕산의 남동쪽인 목2동, 목4동의 경계 지역이며 배후 습지였던 천호지벌을 농경지로 개간함으로써 형성된 동네로, 목양교회에서 마을버스 길을 따라 목동문화체육센터 언덕까지를 말한다. 신촌에는 '엄지미'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엄지산(용왕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현재 목2동 우성아파트 자리이다.

마장(안) 목동리의 남쪽에 있었던 마을로, 조선 시대에 목장을 설치하여 말을 기르던 곳이다. 이 산에는 서낭당과 약수터가 있었는데 목동 신시가지개발 사업으로 이 산은 없어졌고, 목4동 제성병원(현재 홍익병원 목동관) 뒤쪽부터 목동아파트 앞까지 고속도로변이다.

나말(내목동) 목동의 남쪽 가운데 용왕산의 서쪽에 있던 마을로, 현재 목4동의 북쪽과 목3동의 남쪽이다. 나말은 대일고등학교 앞 목동시장 쪽을 포함한 지역이었는데, 윗나말과 아랫나말로 구분되며 양씨 집성촌이었다. 150년 된 느티나무가 남아 옛 마을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다.

【1914년 지방제도 개정과 양천군의 폐지】

이 전 행정구역	면수	통합 행정구역(1914)
김포군	군내면, 석한면, 고현내면 마산면, 검단면, 노장면	⇒ 김포군 군내면 검단면
통진군	군내면, 포구곶면, 질전면, 월여곶면 고리곶면, 대파면, 반이촌면 상곶면, 양능면, 반이촌면 봉성면, 질전면, 하음면, 소이포면	⇒ 김포군 월곶면 대곶면 양촌면 하성면
양천군	군내면, 남산면, 장군소면 가곡면, 삼정면	⇒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

자료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越智唯七編纂, 1917

【1914년 지방제도 개정에 의한 양천군내 리통합 현황】

면	이전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면명	리명		
양천군	군내면	향교동(鄕校洞), 고양리(古陽里), 가마동(加麻洞), 성재정리(成才井里), 공암리(孔岩里)(4)	가양리(加陽里)	
	남산면	등촌리(登村里), 염창리(鹽倉里) 각 일부 (2)	김포군 양동면	
	군내면	후포리(後浦里), 마곡리(麻谷里)(2) 등촌리(登村里) 일부 양화리(楊花里)(1)		
	남산면	염창리(鹽倉里) 일부 월촌리(月村里), 내목동(內木洞), 외목동(外木洞)(2) 육동(陸洞), 반곡리(盤谷里), 역촌리(驛村里), 화곡리(禾谷里)(4)		
장군소면	신월리(新月里), 고음월리(古音月里), 당곡리(棠谷里)(3) 은행정리(銀杏亭里), 신기리(新機里)(2)			
	3면 20개 리		⇒ 1면 9개 리	
양천군	가곡면	원당리(元堂里), 내발산리(內鉢山里)(2) 외발산리(外鉢山里)(1) 늘어리(訥語里), 송정리(松亭里), 소울리(小粟里)(3) 내과해리(內果海里), 외과해리(外果海里), 신정리(新旌里), 장산리(獐山里)(4)	내발산리(內鉢山里) 외발산리(外鉢山里) 송정리(松亭里) 과해리(果海里)	
	삼정면	비곡리(非谷里), 치현리(雉峴里), 능리(陵里)(3) 내부석리(內浮石里), 상사동(相思洞), 개화리(開化里), 외부석리(外浮石里)(4)	방화동(傍花洞) 개화동(開化洞)	
		2면 17개 리		⇒ 1면 6개 리
		총 5면 37개 리		⇒ 2면 15개 리

【1912년 양천군의 행정구역(5면 15동리)】

면명	소속 리명
군내면(郡內面)	마곡리(麻谷里), 가양동(加陽洞)
남산면(南山面)	염창리(鹽倉里), 양화리(楊花里), 화곡리(禾谷里), 등촌리(登村里), 목동(木洞)
장군소면(將軍所面)	신당리(新堂里), 신정리(新亭里)
가곡면(加谷面)	내발산리(內鉢山里), 외발산리(外鉢山里), 과해리(果海里), 송정리(松亭里)
삼정면(三井面)	방화동(傍花洞), 개화동(開花洞)

일제 강점기 양천 지역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양천수리조합의 설립과 한강변 제방의 축조로 인한 농경지 확대와 벼 생산량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양천 지역은 한강, 안양천과 같은 큰 강에 연한 평탄한 저지였다. 평탄하였으나 좋은 수원(水源)이 없어 논보다 밭이 많았으며, 그나마도 수해와 범람의 피해가 많았던 곳이었다.

1924년에 목동, 신정동, 신당동, 화곡동, 고척리 등 지금의 양천구 일대를 구역으로 하는 양동수리조합과 가양동, 마곡동, 등촌동, 염창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를 구역으로 하는 양천수리조합이 준공되었다. 그러나 1925년 미증유의 을축년 대홍수를 맞아 제1호 방조제가 무너지고 농지가 유실, 매몰되어 1926년 1월부터 3개 제방의 보강공사와 농지 보수, 수원지 변경 등의 보강을 하였다. 그러나 이해에도 큰 장마가 짐에 따라 농경지가 모두 침수되었다. 이에 배수기의 설치와 배수로의 개설 등 개량공사를 수행하고 이후에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1938년에 양천수리조합을 준공함으로써 양천의 저평한 지역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으로 바꾸었으며, 양천 지역을 농업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큰 강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서 양천 지역은 비옥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 양천구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의 결과 수도서울이 행정구역을 꾸준히 확장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년에는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가양리, 마곡리, 등촌리, 염창리, 신정리, 목동리, 화곡리, 신당리), 양서면(내발산리, 외발산리, 송정리, 과해리, 방화리, 개화리),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오쇠리, 오곡리)과 소사읍(오류리, 천왕리, 고척리, 개봉리, 궁리, 온수리, 향리), 시흥군 신동면(양재리, 신원리, 우면리, 사당리, 방배리, 서초리, 반포리, 잠실리)과 동면(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

리, 봉천리)이 영등포구(永登浦區)로 편입되었다.

즉, 현재의 목동(木洞)은 1963년 1월 1일 김포군 양동면 목동리에서 영등포구 목동(永登浦區木洞)으로 탄생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시역확장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의 계획인구를 5백만 명으로 하여 수도권을 확장하고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다. 새로 편입된 지역은 그 당시 대부분 농촌 지역이었고 면적이 광활하여 기존의 도시 행정체계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급적 기존의 행정질서를 존중하여 종래의 기구를 활용, 구의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게 하였다. 현재의 양천구 지역을 포괄하는 양동출장소는 양천동, 염창동, 신곡동, 신정동의 행정동을 설치 관할하였고, 목동은 염창동의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서울도심부 인구를 분산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지양하며 근대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주택 건설 및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1968년 1월부터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목동 지역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조성되어 있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은 강서구 공항동, 가양동, 외발산동, 내발산동, 등촌동, 화곡동의 일부와 양천구 신월동, 목동의 일부 470만 6,355㎡를 대상으로 하였다. 1967년 12월 21일 건설부 공고 제159호에 의해 시행 명령되었으며, 1971년 3, 4월 경에 일단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 입체교차로 2개, 학교 용지 확보 등의 사유로 한지 확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 개시 후 14년이나 경과한 1990년에 마지막 한지 처분이 공포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었다. 양화교를 지나 바로 김포공항으로 통하는 대로의 좌우에 위치한 이 지구에는 현재 강서구청이 위치하고 있고, 지구의 남단에는 제조업체가 입지하도록 하였다.



던 마을을 유지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아직까지 예전의 마을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77년에는 늘어나는 인구의 분산과 서울시 서남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강서구가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분구되었다.

1977년에는 목동을 포함한 16개 동이 강서구로 분할 신설되었다. 구(區) 증설계획에 따라 안양천으로부터 서쪽 지역인 염창동, 목동, 등촌동, 화곡동, 마곡동, 신정동, 신월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쇠동, 오곡동 등이 강서구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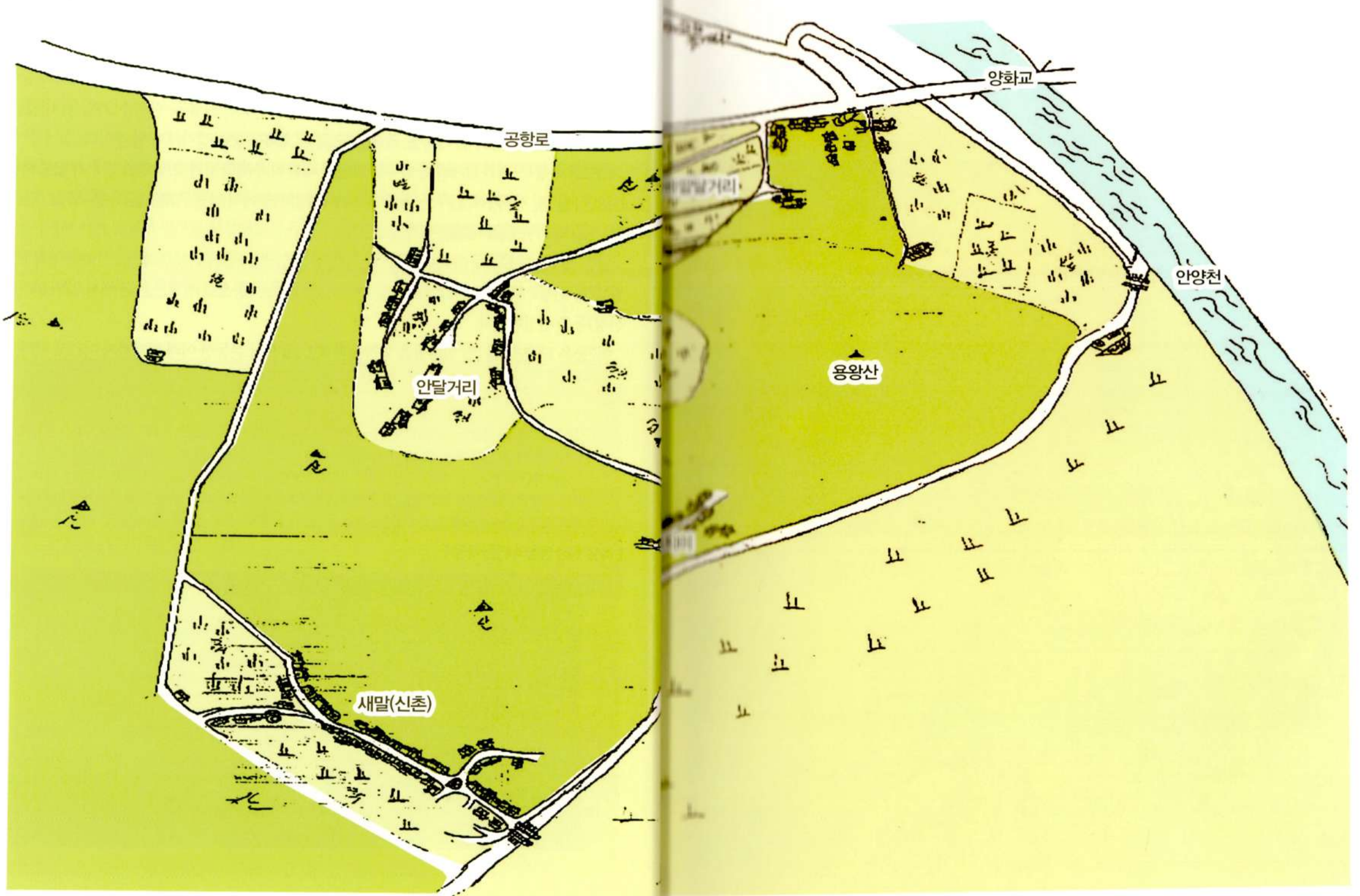
1983년 목동 신시가지개발이 마무리되면서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1988년 1월 1일 강서구의 인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강서구에서 양천구(陽川區)가 분구되고, 같은 해 5월 16일 양천구청(陽川區廳)이 개청되었다.

같은 해 7월 1일 목동을 목1, 5동으로 신정2동을 신정2, 6동으로 분동하였고, 1989년 6월 1일 신월4동을 신월4, 7동으로 1989년 9월 1일에는 목5동을 목5, 6동으로 신정1, 2, 6동에서 일부 분리하여 신정7동을 신설하였다.

목2동은 1980년 7월 1일 염창동을 염창동과 목2, 3동으로 분동한 이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 목동 행정 명칭의 변천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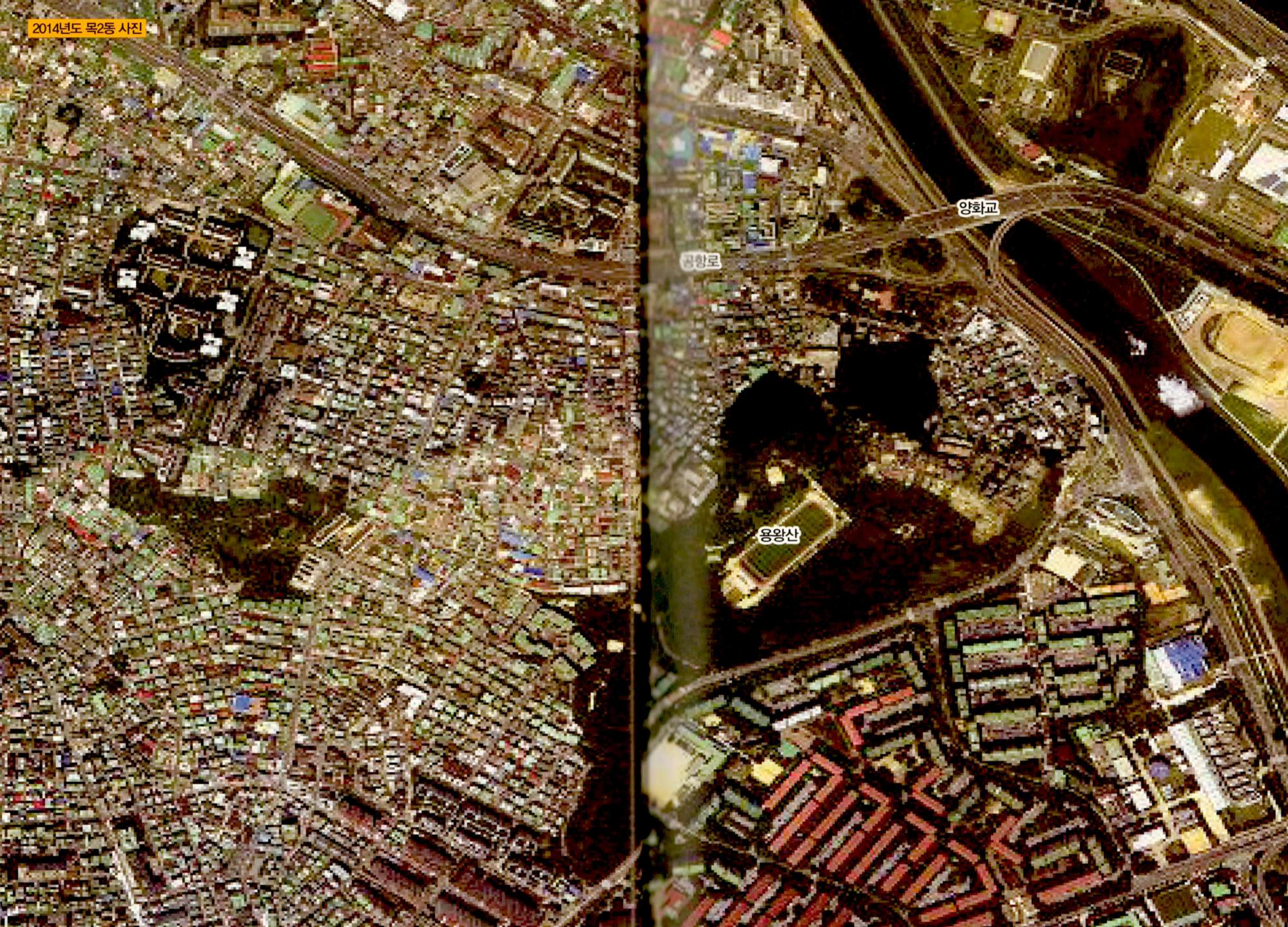
연도	소속	동명					
1914년 이전	양천군	월촌리, 내목동, 외목동					
1914년~	김포군	목동리					
1963년~	양동출장소	염촌동에 편입					
1970년~	영등포구	염창동에 편입					
1975년~	영등포구	목동	염창동에 편입				
1980년~	강서구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1985년~	강서구	목제1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1988년~	양천구	목제1동	목제5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1989년~	양천구	목제1동	목제5동	목제6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2008년~	양천구	목제1동	목제5동	목제2동	목제3동	목제4동	





용왕산

양화교





Mok 2(i)-dong History

01 명소와 유적지

목동 벌에 우뚝 선, 용왕산 | 유서 깊은 조망 명소, 용왕정
주민들의 쉼터, 달거리 약수터 | 호랑이 모양의 바위, 봉바위
도심 사찰 본각사와 효험 좋은 우물 |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 안양천
도심의 생태 쉼터, 달마을 근린공원 | 주거지에 위치한, 목동 도심 소공원
한강변의 한적한 정자, 이수정 | 작은나무깨다리, 양화교
시원스레 뻗어 있는 공향로 | 아름다운 첫인상의, 양화교 인공폭포
옛사람들의 삶의 애환 깃든, 연지방아
마을을 지키는 마을나무, 향나무 | 선교의 꽃, 박순신 여사 추모비
옛 모습을 간직한 추억의 골목길



목동 벌에 우뚝 선, 용왕산

용왕산(龍王山)은 해발 78m와 68m의 봉우리 두 개가 붙어서 형성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 두 봉우리가 마치 펴놓은 엄지손가락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78m 봉우리 부분은 꼭 손톱처럼 생겼다 하여 옛날에는 '엄지산(嚴知山)'이라고 불렸다. 엄지산은 목동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라 ' 으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천호(千戶)가 살 수 있는 들판의 들머리에 있기 때문에 '첫머리'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기도 하다. 또한 옛날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왕으로 환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용왕산, 왕령산(王靈山), 왕재산(王在山) 등의 왕(王)자가 들어간 산 이름으로도 부르게 되었다.

용왕산에는 '호랑이굴'이라고 하는 천연굴이 있었는데, 1964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채석꾼들이 굴 앞부분 바위를 캐가서 지금은 굴 흔적만 남아 있다. 또한 수목이 울창해서 각종 산나물과 버섯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봄이면 동네 아낙들이 산나물을 채취하였다.

양천구 동쪽 끝에 자리 잡아 매년 1월 1일이면 많은 구민들이 용왕정에서 일출을 보면서 한 해 소망을 기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용왕산은 1971년 8월 목동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9년도에 목동 배수지 위에 각종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1,800평의 인조잔디와 길이 390m의 우레탄 조깅 트랙, 배드민턴장, 역기, 철봉 등 각종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우레탄 트랙과 똑같은 또 하나의 외곽 흙길 트랙이 구성되어 있어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그 밖에도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멋스런 공연 무대, 지압길,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정자도 조성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하나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효율성 높은 다목적 시설이며, 주변에는 각종 나무와 숲,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주민들이 사계절 이용하는 아름다운 근린공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202-17에 위치하며, 24시간 무료로 개방하여 연 인원 9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용왕산 정상에 만들어진 우레탄 트랙



용왕산의 흙길 트랙

유서 깊은 조망 명소, 용왕정

용왕산(龍王亭) 정상에 세워져 있는 팔각형 정자로, 1994년 서울 정도(定都) 600년(1394~1994)을 기념해 조선조 중기 건축 형태로 세워졌다. 건물 규모는 연건평 70㎡, 한식 2층, 팔작(八作)기와 정자로 기와 5,502장이 소요되었다.

용왕산 정상은 예로부터 서울 경치를 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던 유서 깊은 조망 명소로, 성산대교와 월드컵 분수가 바로 눈앞에 내려다보이고, 좀 더 멀리로는 월드컵 경기장, 북한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서강대교, 63빌딩 등이 보인다. 몇 년 사이에 부쩍 올라간 목동의 고층빌딩들과 시가지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용왕정 건립비



용왕정 전경

주민들의 쉼터, 달거리 약수터

용왕산 내 목동 도심 소공원에 있는 약수터이다. 수질 검사에서 계속 적합 판정을 받아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가 흘러나온다. 약수가 담긴 수조가 거북이 모양으로 친숙함을 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 하늘 걷기, 온몸 노 젓기, 마라톤 운동기동 실외에서도 운동 가능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약수터 이용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있다.



달거리 약수터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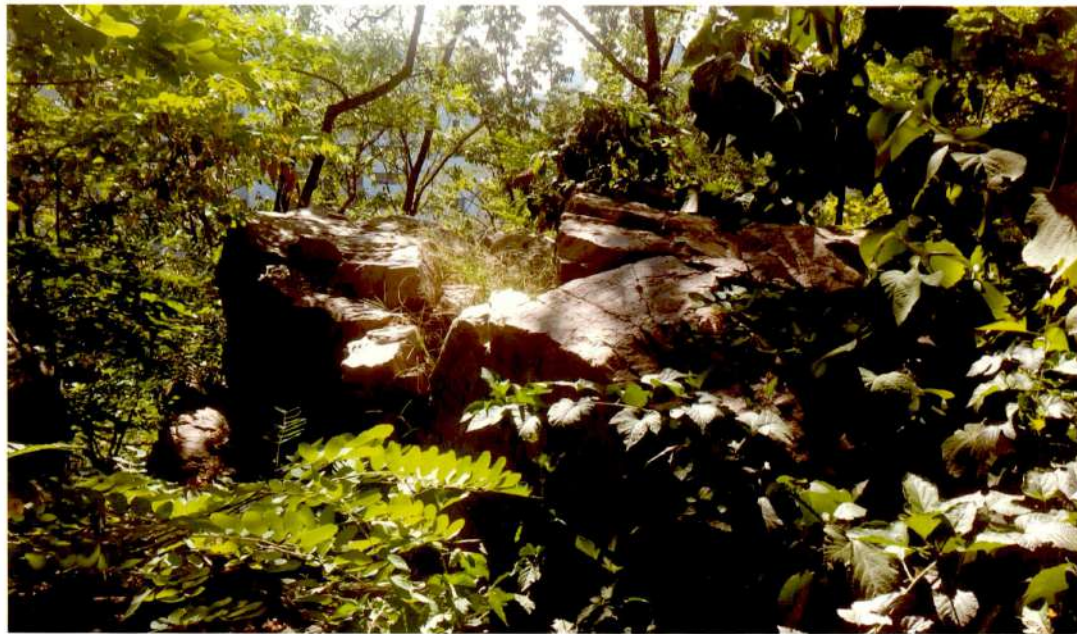
달거리 약수터 주변 풍경

호랑이 모양의 바위, 봉바위

용왕산에 있는 바위의 하나로,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어 '범바위'로 불렸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 소 '봉바위'로 바뀌었다. 그 위에 오르면 예전엔 황금 들녘과 초가지붕, 논밭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숲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가 보인다. 옛날엔 자식 없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려서 효험을 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봉바위는 목2동 지역 주민의 애환(哀歡)이 서려 있는 곳으로,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기도 하고,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주던 장소다. 봉바위 주변이 경치도 제일 좋고 숲속에 산토끼도 많아, 산토끼를 잡기 위해 산 위에서 아래로 몰기도 하고 쫓기도 많이 살았다.

봉바위 옆의 범무단지는 허씨 종중산으로 밤나무가 많았고, 새말의 어린이들이 윷말, 아랫말로 나뉘어 병정놀이를 하며 보내던 추억의 장소이다. 또 봉바위 아래 하천은 수리조합의 물이 흘러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철에는 썰매를 타며 놀던 곳이었다. 봉바위는 속이 비어서 두들기면 퐁퐁 소리가 울렸다.



여름철 봉바위의 모습

도심 사찰 본각사와 효험 좋은 우물

서울 양천구 목2동 산7-12 용왕산(龍王山) 아래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예전에는 용왕사라 불리던 곳이다. 본각사(本覺寺)에는 본법당인 대웅보전과 그 바로 우측에 석조 미륵불상, 앞마당에 5층 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그 위쪽 언덕으로 삼성각, 앞마당 좌측에는 종무소가 있고, 사찰 입구 왼쪽에 용왕당(산신각)이 있다.

본각사 입구 왼편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나는 약수가 피부병에 효능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주변 영등포구와 강서구 주민들까지 방문하여 줄을 선 사람들이 100m가 넘을 정도였다고 한다.



본각사의 대웅전



석조 미륵불상과 5층석탑



삼성각



우물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 안양천

목2동과 영등포 사이에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안양천(安養川)이 흐르고 있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길이 34.75km에 이른다. 경인선의 안양천 철교부터 올림픽대로 염창교까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양철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안양천과 나란히 지나고 있다. 1960~1970년대에는 안양천 제방 위에 도심 철거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빈민들이 모여 빈민촌을 이루었으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 조성과 더불어 사라졌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걸쳐 있는 삼성산(三聖山) 안양사(安養寺)에서 발원했다고 하여 안양천(安養川)이라 부르며, 과천 청계산의 남서 계곡에서 발원하는 청계사천, 삼성산에서 발원한 삼성천, 백운산에서 발원한 학의천이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 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를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안양천을 목2동 주민들은 셋강으로 불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연환경이 맑고 깨끗해서 안양천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고, 각종 물고기 및 조개도 많이 살고 있었다. 이후 한때 강 유역의 공단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하여 하천 오염이 심각하였고, 수방 시설의 미비로 1977년 7월에는 대홍수가 일어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78년 안양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함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이루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양천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안양천에는 갯벼들과 갈대 등 2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도롱뇽과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 10여 종, 개뿔하루살이와 줄납고래 등 저서생물 50여 종, 황조롱이와 노랑할미새 등 조류가 40여 종 서식하고 있다.



안양천 종합안내도



주민들의 휴식 공간 된 안양천변

도심의 생태 쉼터, 달마을 근린공원

2009년 9월 9일에 개장한 35,021㎡의 근린공원으로,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이다. 기존 자원과 주변의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위적인 시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숲과 자연을 주제로 한 생태학습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입구 중앙부의 물줄기가 끊어진 Y자형 계곡에 총길이 205m의 생태 물길을 조성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참나무 1,880주, 물억새와 부들 등 36,750본의 수변식물 등을 심었다. 또한 탐방객 스스로 자연 속에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해설판을 설치하여 셀프 가이드(self-guide)형 생태 탐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원 내부의 동선을 조정하여 730m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 체력 단련을 도모하였다.

달맞이 언덕, 참살이터, 달빛 쉼터, 솔잎 어귀 등 정감 있는 이름의 쉼터들이 곳곳에서 방문객을 맞아 주는 가운데 졸졸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 들국화처럼 가득하게 핀 벌개미취, 양서류와 곤충, 조류 등의 자연이 어우러져 식막한 도심 안의 휴식과 안식을 제공해 준다.

특히, 공원 중심부를 흐르는 개울물은 인근에 소재한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버려지는 수영장 퇴출수와 지하용출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달마을 근린공원은 2009년 환경부 자연환경대상 공모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달마을 근린공원 산책로

주거지에 위치한, 목동 도심 소공원

양화교 남단, 용왕산 근린공원 북동쪽인 목동 517번지 일대에 조성된 주거지형 근린공원이다. 13,366㎡의 면적에 중앙광장, 다목적운동장과 어린이놀이시설,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립 용왕경로당과 양화빛물펌프장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용왕산에서 목동 도심 소공원을 거쳐 달마을 근린공원에 이르는 길은 목2동 주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 둘레길로, 바쁜 일상 속에 자연을 벗삼아 산책할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목동 도심 소공원

한강변의 한적한 정자, 이수정

조선 중기 한산군 이덕연과 충숙공 이덕형 형제가 세웠다는 정자로, 지금은 강서구 염창동 한강변에 '이수정(二水亭)'이라는 표석만 남아 있다. 최완수(崔完秀) 씨의 조사에 따르면 "염창탄 서쪽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는 옛날에 효령대군의 임정(林亭)이 있었는데, 그 후 한흥군(韓興君) 이덕연(李德演)(1555~1636)과 그 아우 찬성(贊成), 덕형(德炯)이 늘어 물러나와 정자를 고쳐 이수정(李水亭)이라 하였다"고 한다.

두미암과 쥐산(인공폭포가 있는 산) 사이로 안양천이 흘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미암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강변 쪽에 두미암의 흔적만 조금 남은 채 '이수정'이라는 표석이 놓여 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이수정'이라고 이름붙인 조그만 정자를 세워 놓고 매년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배를 타고 양천(현재의 가양동)에서 양화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바라본 시각이다. 오른쪽으로 깎아지른 벼랑이 있고 나루터에서 오솔길이 나 있는 산 위에 이수정이 보인다. 앞산 너머로 먼 산이 넓게 그려져 있는데, 왼편으로 트여 있는 물골이 안양천이 한강으로 빠지는 물목이다.



겸재 정선이 그린 <이수정>

작은나루께다리, 양화교-철곶포(鐵串浦)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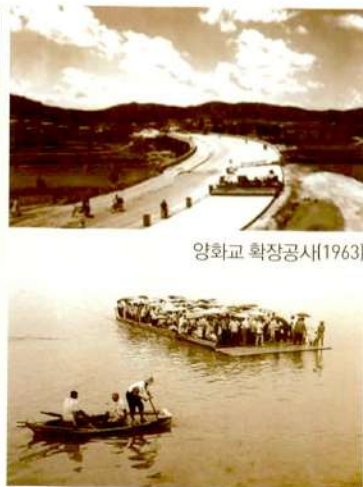
양천구 목2동과 영등포구 양평2동 사이 안양천 하류 노들길에 있는 다리이다. 옛날에는 이곳에 돌다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돌다리가 오래되어 무너지자 '작은양화나루' 또는 '철곶포(鐵串浦)'라는 나루를 두어 작은 거룻배를 이용해 안양천을 건너다니도록 하였다. 그 뒤 나무다리를 놓아 일명 '작은나루께다리'라고도 불렀다. 양천은 옛날부터 김포와 강화도를 잇는 중요한 교통요지였다. 강화도는 옛날부터 국방상 중요한 지역으로 취급받았으며, 따라서 강화도까지 가는 길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강화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철곶포를 꼭 지나야만 했는데, 당시에는 오목내(안양천)를 가로질러 다리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나루가 형성된 것이다. 이 나루를 통해 서울과 한강 북쪽의 포구에 들어가 돈벌이를 했던 수많은 양천지역의 주민들에게 이곳은 매우 소중한 통로였다.

그러다가 1935년경 교통량에 비해 다리가 좁게 되자 나무를 쥐산 동편으로 옮기고 콘크리트로 좀더 넓은 다리를 가설하여 '염창교'라고 불렀다. 양화 나루와 염창동 사이에 놓였다 해서 염창교라 했는데, 서울역 부근에 있는 염전교와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되자 옛 양화 나루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하여 '양화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도 양화교와 염창교란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 후 1979년에 다리를 다시 건설하였으며, 공항로와 연결되는 다리로서 교통량에 비해 좁아져 1987년에 확장 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완공된 제2한강교(양화대교), 1965



당시까지 남아 있던 마포강의 나룻배(1968년)

양화교 확장공사(1963)

시원스레 뻗어 있는 공항로

목2동과 염창동의 경계를 이루며 시원하게 뻗어 있는 대로가 공항로이다. 서울과 김포 및 강화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로, 양화대교에서 등촌동, 공항동을 지나 과해동 275번지 김포공항 정문에 이르는 도로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서소문동 대한항공 앞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어져 있던 길이며,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폭이 8미터로, 서울에서 강화도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에 김포국제공항이 개설되어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항로가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1년에는 영등포에서 김포공항까지 총연장 1,350미터를 기존 8미터에서 1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노반 공사를 끝냈는데, 이를 위해 총 6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하루 평균 3,800명씩 총 20만 명이 동원되었다. 1962년에 포장공사를 완료함으로써 4차선도로가 확보되었으며, 당시에는 이를 고속도로라고 불렀다. 특히 원당 사거리에서 공항동 시가지가 시작되는 곳까지의 구간은 비상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양쪽의 가로등주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후 1970년대까지 공항에서 내린 국민들이 이 길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며 퍼레이드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환영 행사를 하곤 했다.

김포국제공항과 도심에 있는 이 공항로는 1980년 성산대교의 개통과 더불어 양천구 목동 주민 및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도로이며, 특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 서울의 아름다운 첫인상을 심어 주는 첫 길목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공항로



영등포-김포공항간 도로확장 준공(1962)

아름다운 첫인상의, 양화교 인공폭포

양화대교를 건너 김포로 가는 길목인 양화교 앞에 높이 15m, 길이 98m의 폭포가 힘차게 쏟아져 내려온다. 바로 양화교 인공폭포이다. 높이 12m, 폭 15m인 주폭포를 중심으로 6개의 크고 작은 폭포수가 소리도 우렁차게 쏟아지며, 폭포 연못 주변에는 180개의 수중등과 투광등을 설치하여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한다. 폭포 주변에는 녹지대가 만들어져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아름다운 첫인상을 심어 주는 곳이다.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엔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규모로,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이 잠시 들러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시설이 노후화하여 새로운 폭포가 조성될 때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화교 인공폭포 준공(1979. 6. 27)

옛사람들의 삶의 애환 깃든, 연자방아

옛날 달거리마을(月村, 목2동의 옛 이름)의 큰 나무 밑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연자방아가 있었는데, 소가 하루 종일 돌면서 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연자방아가 쓸모 없게 되자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되다가, 한 주민이 안타깝게 여겨 손을 보아 보존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수수하고 소박한 연자방아이지만, 그 옛날 달거리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들어 있다.

마을을 지키는 마을나무, 향나무

목2동 533-22호 두산빌라 뒤에 커다란 향나무 2그루가 서 있다. 그 굵기로 보아 상당히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 온 나무임을 알 수 있다. 이 향나무는 덕수이씨 이광(월촌)이 심었다고 전해 오는데, 덕수이씨 월촌 양반 종가집에서 매년 가을에 향나무 밑에 떡을 해 놓고 재를 올렸다고 한다. 죽은 나뭇가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중히 여기며 모셨는데, 지금은 재를 지내는 사람도 없고 주변은 주택단지로 변하여 옛날의 자연이나 옛사람들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현재는 그 나무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세워져 있는데, 나무를 해치지 않으려는 배려였을인지 옥상의 일부분을 오목하게 비워 놓았다. 나무를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애정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두산빌라 뒤의 향나무

선교의 꽃, 박순신 선생 추모비

일제 강점기에 처녀 전도사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목동감리교회 내에 성애공민학교를 세워 초대 교장으로서는 많은 학생들을 학비 없이 가르쳤으며, 여성 복지와 교육을 위해 힘쓰다 6.25 때 순교한 박순신 선생을 추모하여 세운 추모비가 있는 곳이다. 용왕산에 위치해 있다. 추모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선생은 1904년 러시아 땅 연해주에서 출생, 조국으로 돌아오시어 1928년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협성신학교(감신대 전신)를 수료하신 후 처녀 전도사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선교활동을 하셨다. 선생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시고 1948년 목동감리교회 내에 성애공민학교를 설립, 초대 교장의 직임을 맡아 목회와 육성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을 학비 없이 가르치셨으며, 특히 여성의 교육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김포군(강서, 양천 포함) 부인회 회장을 맡아 봉사하였다. 선생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권하였으나 교회와 학생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하시며 거절하셨다. 선생은 그해 9월 20일 국군의 서울수도 탈환을 위한 치열한 전투 중 목동 사택에서 국군을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를 만들다가 총탄에 맞아 순교하시어 향년 47세를 일기로 이곳에 고이 잠드시다.

순교 50주년에 선생을 추모하면서 비를 세우다.

서기 2000년 9월 20일 성애공민학교 최영철(최태식의 부) 외 제자 일동

옛 모습을 간직한 추억의 골목길

목동중앙본로2길 13-29, 30, 31, 32에는 아주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추억의 골목길 이 있다. 이곳에는 집과 담, 골목길의 형태가 예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골목길을 거닐며 옛날의 추억에 잠겨 볼 수 있다.



목동중앙본로2길 13-29, 30, 31, 32 [목동 230-4, 7, 8호]



박순신 여사 묘



추모비



Mok 2(i)-dong History

02

기억 속 **그때 그곳**

마을살림을 맡아 보던

양동면사무소

홍수 막고 논을 만든

양동토지개량조합

통신을 도맡았던

양서·화곡우체국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서울도시가스

그 옛날의

국민학교들



행정을 맡아 보던 양동면사무소

1962년까지는 이 지역의 행정 업무를 양동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양동면사무소는 지금의 가양1동 지역에 있던 조선 시대 양천현아동헌(陽川縣衙東軒)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목2동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그곳까지 먼 길을 걸어온 하곤 하였다. 양동면사무소는 1959년까지 그곳에 있다가 등촌리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하였고, 1963년에는 양동면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동출장소로 변경되었다가 1968년 폐지되었다.

면사무소의 내부 기구는 서무, 재무, 호적, 병무, 회계, 농지, 산림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계에는 담당자가 있었으며, 그 위에 면장이 있어 사무를 총괄하였다.



겸재 정선이 그린 <양천현아도>

홍수 막고 논을 만든 양동 토지개량조합

양천 지역은 한강과 안양천에 이어진 낮은 지대로, 논보다는 밭이 많고 갈대가 많이 자라 구한말 시대에는 육군 군마 목양지초원(초우지벌)으로 쓰인 곳이었다. 그나마 홍수 때는 범람하여 큰 수해를 입곤 하던 지역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8년에 방수제를 쌓고 1924년에는 양동 수리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1925년 대홍수가 나 방수제가 무너지고 논밭이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 뒤 1926년에 제방을 보강하고 수원지를 변경하였지만 다시 홍수 피해를 입자, 그 뒤 배수기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개설하는 등 계속 개량공사를 하였다. 또한 1934년에는 토지개량사업으로 구획정리를 하여 이 지역 일대를 안전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으로 만들어 내었다.

이로 인해 쌀의 생산량이 급속히 늘었으며 생산되는 쌀의 질도 좋아 상등품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등으로 흠을 저 날라 제방을 쌓고 물길을 내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노고를 쏟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통신을 도맡았던 양서·화곡우체국

지금은 첨단 통신 설비가 넘쳐나 우체국의 중요성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주민들의 통신을 도맡은 곳이 바로 우체국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가정에 전화기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과의 통신은 대부분 편지와 전보에 의존했으며, 전화를 한번 걸기 위해서 우체국으로 가야 했다. 1982년까지만 해도 체신부가 전화 통신을 관할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1930년대 전화기와 전화번호부

양서우체국

우리 지역의 우체국은 조선 시대인 1912년 1월에 경기도 양천군청 내 향청에 설치한 양천우편소가 처음이었다. 이곳에서 군내(양천군 5면)의 통신을 취급하다가 1912년 9월 가양리 하마비 부락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그 뒤 1932년에 목조 청사를 시멘트 2층 양옥으로 개축하였으며, 1941년에 우편소를 우편국으로, 1949년에 우편국을 우체국으로 개칭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전란에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이를 복구하지 않고 비행장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한 뒤 양천우체국을 양서우체국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1958년에는 자석식 전화 교환 시설로 시내 및 부근(방화리, 송정리, 개화리, 가양리, 비행장 내)에 전화선을 가설하고 통화를 교환하며 통신 업무를 전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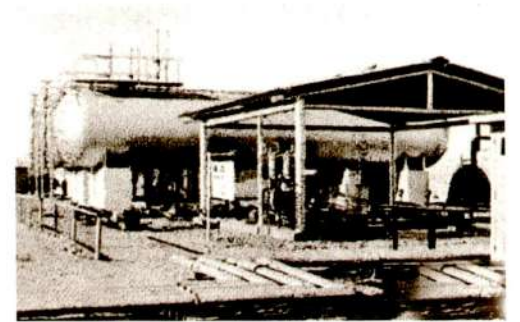
화곡우체국

1968년에는 지금의 강서구 화곡동 자리에 화곡우체국이 무집배국으로 개국하였다. 그 뒤 1969년에 우편집배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 김포공항분국을 관할하였다. 1987년 김포공항분국이 김포공항우체국으로 개칭되고 목2동 우편취급소를 개소하였다.

주민들과 고락 같이 한 서울도시가스

강서구 공항대로 607에는 서울도시가스 사옥이 있다. 지역 주민들과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한 서울도시가스는 1971년에 착공하여 1972년에 준공되었다. 처음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세워진 것은 1966년이였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의 연료 혁명을 위해 공업연구소와 함께 연구 검토하면서 서울 지역 가스 공급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해, 목동과 면목동에 도시가스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1970년에 용산공장이, 뒤를 이어 여의도공장이 세워져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연료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었다. 그래서 1972년 지금의 위치에 도시가스 남부공장이 대규모로 지어져 강서, 양천, 영등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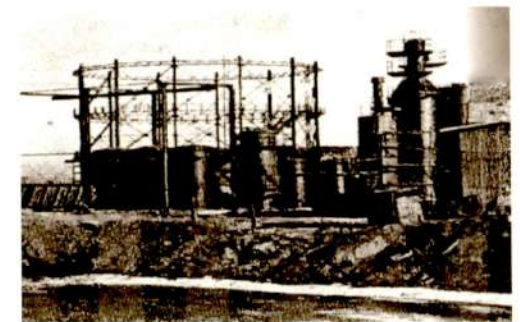
당시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서울시영도시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국영 회사였는데, 1983년에 대성연탄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던 대성산업이 이를 인수하여 서울도시가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후 주변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로 변모함에 따라 서울도시가스는 공장을 한강변의 준공업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2005년 신사옥을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용산 동부이촌동 소재 LPG가스 공장 전경(1970년)



도시가스 남부 공장 기공식(1971년 8월)



도시가스 남부 공장 건설 공사 모습

그 옛날의 국민학교들

예전에는 지금처럼 학교가 많지 않았다.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국민학교도 멀찍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논을 지나고 밭을 지나 10리 길 이상을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 했다. 목2동의 학생들은 현재 가양1동에 위치한 양천국민학교를 다녔으며, 1933년 신정국민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새말 지역의 학생들이, 1944년에 개교한 당산국민학교에는 바깥달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녔다. 이 학교들은 지금은 모두 양천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당산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양천국민학교(양천초등학교)

조선말인 1900년 2월 15일 양천군 양동면 가양리 향청(鄉廳)에서 4년제 공립소학교(公立小學校)로 처음 설립된 이 학교는 1907년에 공립 양천보통학교로 개칭하고 1909년 양천군수 이호승(李浩升)이 교장을 겸임하였다. 1911년에 객사를 빌려 이전하였으며, 1913년에 제1회 졸업생(남학생 15명)을 배출하였다. 그 뒤 1922년에 새로 교사를 짓고 이전하여 6학년제를 실시하고 여학생도 모집하여 한 학급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이 지역 여자 교육의 시초였다. 이 당시에는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 고촌면 전호리와 고양군 지도면 행주리 등에 사는 아동들이 양천에 와서 기숙하며 학교



양천초등학교 일대
(주민이 기증한 그림)

에 다녔는데, 양천 지방의 학교가 양천 공립보통학교 하나뿐이어서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이 많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1933년 신정리에 부설 신정간이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1면 1교 방침에 따라 신정간이학교를 신정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됨과 동시에 일제 교육을 해체하였으며, 9월 24일 미군정관통첩(美軍政官通牒)으로 다시 개교하였다가 1947년에 양천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휴교되었다가 수복 후 수업을 개시하였으나 1951년 1.4후퇴로 다시 휴교하였고, 전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1952년 11월부터 1954년 7월까지 미군의 원조와 주민들의 힘으로 피해 입은 교사를 수리하여 다시 개교하였다. 1963년 서울특별시에서 편입된 후 1996년 양천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강서구 가양동에 속해 있다.

신정국민학교(신정초등학교)

1933년 양천보통학교의 분교로 김포군 양동면 신정리 은행정 부락에 설립된 이 학교는 1949년 신정국민학교로 독립 승격되어 6학급을 편성하였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휴교하였다가 수복 후 개교하였으나 1951년 1.4후퇴로 다시 휴교했다가 5월 10일 다시 개교하였다. 1955년에는 화곡리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1963년 화곡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현재는 강서구 화곡동에 속해 있다.

당산국민학교(당산초등학교)

일제강점기인 1943년 '경성당산공립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1944년에 9학급 편성으로 개교한 이 학교는 1945년 해방 후 서울당산국민학교로 발족하였고, 1947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뒤 1996년에 서울당산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4년에는 서울시 교육청 '학교평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9월 제1회 남부교육청주관 학교교육혁신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지금은 영등포구에 속해 있다.



Mok 2(i)-dong History

03

전설과 옛이야기

왕이 되지 못한

용왕산의 용

오목내와 오목교

세종대왕이 머물다 간

철곶포

양천 원님은

부임할 때 울고, 나갈 때 운다

양천 농의

쇠궁둥이 돌리듯

천호의 집이

들어설 곳이라도



오목내와 오목교

안양천의 원래 이름은 '오목(梧木)내'였다고 한다.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개울이 여럿 있었는데, 오목교 근방에 이르면 이 개울의 물길들이 한데 모이면서 하천 바닥을 움푹하게 파 골을 만들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움푹 파여 '오목하게 만들어진 내'라는 뜻으로 '오목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곳은 오목하게 파인 데다 물살이 세어 냇물을 건너기가 어려웠다. 마을 사람들은 냇물을 건너기는 해야겠고 물살은 너무 세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렵사리 다리를 놓아 놓으면 어느새 센 물살에 휩쓸려 다리가 떠내려가 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마침 떠내려가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아 매고 있는데, 한 늙은 스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찻찻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오동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쉬울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질없는 수고를 하고 있구나, 찻찻.”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 하나가 급히 달려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방금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러자 스님은 힐책하듯 말하는 것이었다.

“저 위쪽 여울에서 오동나무를 떠내려 보내 멈추는 곳이 다리를 놓을 곳인데, 괜한 장소에서 애쓰며 다리를 놓고 있으니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속는 셈치고 노승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근방에는 오동나무가 하나도 없으므로, 멀리 남쪽에 있는 칼산까지 가서 오동나무를 베어 바로 안양천 물에 띄웠다. 그랬더니 나무는 지금의 오목교 근방까지 떠내려와 멈추었다.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다리를 놓을 곳이라며 서둘러 다리를 건설하였다. 그러자 이때부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다리가 떠내려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오동나무 다리'라는 뜻으로 '오목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민들이 전하는 오목교의 내력

오목교와 관련하여 전설과는 다르게 목2동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목2동의 주민들은 안양천을 한강 사이에 있다고 하여 '셋강'이라고 불렀다. 안양천에는 김포공항과 김포읍 및 강화도로 건너가는 양화교(옛 이름 철꽃포), 영등포와 소사(부천시), 인천을 연결해 주는 고척교 2개의 다리밖에 없었는데, 이 다리들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다. 당시 영등포는 공장 지역이 많고 거주 및 유동 인구가 많아 큰 시장이 형성되어 변화하였다. 오목동 지역의 사람들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영등포



안양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농산물을 우마차나 손수레, 지게에 짊어지고 양남동을 거쳐 영등포 시장까지 농로길을 이용해 팔러 다녔다. 영등포시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안양천을 건너야 했는데, 양화교나 고척교는 돌아가는 길 이어서 거리가 멀어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고자 동네 주민들이 지금의 오목교 자리에 다리를 놓았다. 오목교는 목동의 다섯 부락(오목동)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주민들이 스스로 나무와 흙을 이용하여 다리를 놓아, 안양천을 건너 영등포까지 다녔던 다리다. 이 다리는 나무와 흙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홍수가 나면 다리가 망가져 이용할 수 없게 되곤 하였지만, 다리가 부서지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다리를 고쳐 이용하였다. 오목교란 이름은 오목동의 주민이 다리를 만들고 이용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오목교 부근에는 중국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부추, 양배추, 당근, 양파, 시금치 등을 재배하여 오목교를 건너 영등포시장에 내다 팔았다.

안양천은 한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천 앞바다의 썰물과 밀물에 따라 한강물이 들어오고 나가 수위가 달라졌다. 안양천 하류는 특히 인천 앞바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조금 때면 물이 많이 빠져 오목교 아래를 맨발로 걸어 안양천을 건너가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이 머물다 간 철곳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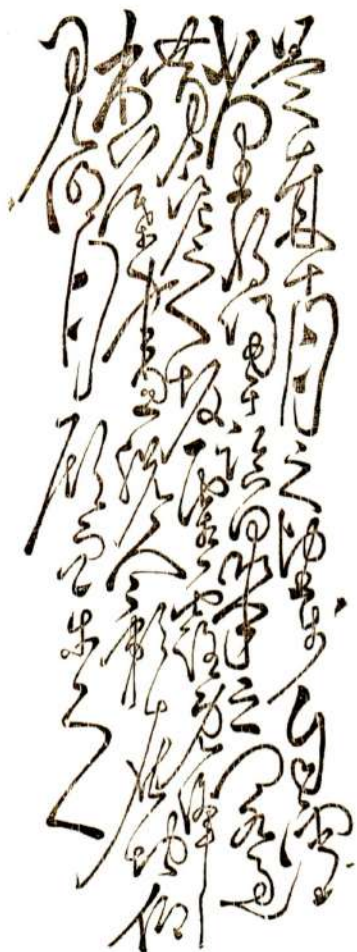
철곳포는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오늘날 안양천 합수부 일대를 일컫는다. 조선말, 대한제국 시기에는 합수부 바로 전 안양천 위에 나무로 된 다리가 놓여 있어 '작은나루께다리'라고 불렀으며, 지금은 그다리 대신 양화교가 놓여 있다.

조선 시대에는 철곳포가 서울에서 부평, 인천, 강화로 가는 대로로 이어지는 나루터여서, 관선이 배치될 만큼 중요한 길목이었다. 또한 그 일대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사냥터로 유명해서, 세종대왕의 형이자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매사냥을 나오곤 하던 곳이었다. 양녕대군은 태종 임금의 꺾을 비운 사이 세자전을 빠져나와 철곳포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사냥을 즐기다 들켜 크게 혼이 나기도 하였다. 양녕대군은 이뿐만 아니라 태종 임금과 신하들의 눈에 나는 일을 거듭하다 결국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충명하고 지혜로웠던 충녕이 세자가 되어 훗날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세종대왕이다.

그런데 태종과 세종대왕도 종종 매사냥을 즐기곤 했던 듯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남아 있다.

“(태상왕 태종과 세종 임금이 김포 통진에서 매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낮잠으로 철곳포에 머물렀는데 술자리를 베풀고 효령대군 이보 등이 입시하였다. 그 길로 낙천정에 돌아왔다. 날씨는 춥고 길은 험하여 시위하던 군사 중에 미처 따라오지 못한 자가 많았다.”

철곳포는 양녕대군뿐만 아니라 태종 임금과 세종대왕이 머물다 간 풍광 수려한 곳이었다.



양녕대군의 진필로 전해지는 '후적벽부' 병풍 글씨



옛날 철곳포 자리

양천 놈의 쇠 궁둥이 돌려 대듯

양천 지역은 한강과 안양천 등 큰 하천 옆에 있었지만, 옛날에는 하천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논 농사보다는 밭농사를 많이 지었고, 논농사 역시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와 강물이 넘치면 수해를 입는 일이 몇 년마다 반복되었고, 탐관오리의 탐학 또한 계속 이어지니, 양천 지역의 백성들은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양천 지역의 백성들은 살기 위하여 온갖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다행히 양천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가져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무 장사였다. 양천은 토산물로 연료가 되는 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천 사람들은 송아지를 낳아 기르기 위해 주로 암소를 많이 길렀고, 나뭇짐을 나를 때도 암소를 이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나무를 팔러 갈 때나 팔고 돌아올 때 길에서 암소와 수소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수소는 성질상 암소에게 자꾸 기어오르려 하고, 암소는 또 이것을 피하느라 궁둥이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는 것이었다.



김홍도의 <장터길>

이런 장면이 흔히 일어나다 보니, 친구 사이에 수작을 거는 일이 있으면 농담처럼 말하기를 “양천 놈의 쇠 궁둥이 돌려 대듯” 한다고 하였고, 그것이 양천 속담으로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이다.

양천에 전해 오는 또 다른 속담으로 “양천 사람은 바람 마시고 죽을 마신다.”는 말이 있다. 이 또한 서울에 나무 팔러 가던 양천 사람들을 빗대어 이르던 말이었다.

기후에 따라 부는 바람은 일정치 않으나 양천에는 아침에는 동풍이 불고 저녁에는 서풍이 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양천 사람들은 서울로 나무를 팔러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동쪽으로 길을 가니 아침에는 동풍을 마시며 가게 되고, 하루 종일 걸려 나무를 다 팔고 집에 갈 때는 저녁이 되어 서풍이 부니 또 서풍을 맞으며 서쪽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해마다 흉작이 이어질 때가 많아 죽을 먹는 때가 많으니, “양천 사람은 바람 마시고 죽을 마신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옛날에는 실제로 사정이 그러하였다고 하니, 것처럼 빠져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으로 넘길 줄 알았던 서민들의 풀뿌리 인생이 대단하기만 하다.

양천 원님은 부임할 때 울고, 나갈 때 운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이후 문관이 주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가문의 큰 영광으로 여겼다. 가문에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가문의 자랑이 되고, 후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지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정계에 진출했다고 해서 모두가 위인인 것은 아니다. 정계에 진출하여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여겨 백성들의 고혈을 빼는 부패 정치인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비리가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도 공직자들의 비리가 적지 않았는지, 양친구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은 공직자들의 속마음을 풍자하듯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 준다.

“양천 원님은 부임할 때 울고, 나갈 때 운다.”고 한다. 양천 원님은 도대체 왜 부임할 때 울고 나갈 때도 우는 것일까?

양천현은 길이 30리에 폭 15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고을이었다. 그것도 한강이 가까운 들판에 있어서, 여름에 비만 좀 심하게 왔다 하면 기껏 지어 놓은 농작물이 물이 다 떠내려가 크게 수해를 입곤 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이 고을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라야 모두 잡곡뿐이라고 하니, 누구라도 한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현감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을에 부임하니 낙심이 되어 울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부임해서 지내다 보니 관수미(官需米, 현감의 양식으로 백성에게서 거둬들이는 쌀)가 백미(白米)로 108석이고,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손님 접대용으로 정해 놓은 쌀)가 30석이며, 그 밖에 은결(隱結)에서 남모르게 생기는 것과 살림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쏙쏙히 들어오니, 작은 고을 치고는 상당한 수입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임지로 떠날 때는 이런 알짜배기 고을을 두고 가게 되니 아까운 생각에서 울음이 났다는 것이다.

위정자들 스스로가 보기에다 자주 수해를 입고 생산량도 적은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곡식은 두고 떠나기 아까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니, 이 지역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을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천 호의 집이 들어설 곳이다!

옛날 이름난 풍수가가 서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을 보면서 말했다.

“음, 저기가 지금은 한강 물이 들락날락하고 갈대가 무성하지만, 두고 보아라, 언젠가는 저곳에 천 호의 집이 들어설 것이다. 저 갈대밭에 나무가 들어서고, 나라에서 저곳을 천지개벽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러니 저곳을 천호지벌이라 부르자.”

하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목동신시가지로 개발된 지역은 실제로 옛날에 습지였다. 1917년에 만들어진 5만분의 1 지도를 보면 확연하게 습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습지를 개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큰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이처럼 계속 습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만들고자 했던 일제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와 양천 백성들에게 참혹한 노동을 강요해 가며 그 넓은 습지를 논으로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양동식 산회사를 세워 양동제방을 준공하였는데, 이때 목탄차를 동원하고 백성들이 등으로 흙을 저 날라 그 제방을 다 쌓았다고 한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다시 홍수가 나고 제방이 유실되고 하였으나, 백성들을 동원하여 다시 제방을 쌓고 수원지를 변경하고 양수, 배수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 끝에 넓은 논이 생겨나자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마을이 점점 커져 갔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천호는 물론 만호가 넘는 지역이 되었으니, 옛날 풍수가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천호지벌이 예견되었던 곳



Mok 2(i)-dong History

04

다양한 문화행사

양천의 새해를 여는 용왕산 해맞이
인양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목2동에서 행해진 민속놀이 및 풍속
50만 구민이 하나 되는 양천구민의 날
경로 효친 시상 고취하는 경로잔치
화합과 축제의 장, 동민 체육대회
여름 나기 기원, 어르신 삼계탕 대접
아름다운 마을 축제, 모기동 축제
마을 예술 잔치, 영진목욕탕 작품전시회



양천의 새해를 여는 용왕산 해맞이

용왕산에서는 매년 1월 1일 새벽 6시부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펼친다.

해가 떠오르기 전 용왕산 체육공원에서 거행되는 '소망 기원문 쓰기', '풍물패의 길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모여든 양천구민들이 다 함께 용왕산 정상의 용왕정까지 올라 50만 구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며 힘차게 북을 두드리는 '희망의 대북 타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함께 환호성을 지르는 '해오름 합성', 한해의 소망을 담아 풍선을 띄워 올리는 '소망 풍선 날리기' 등 새해 첫 아침을 열어 새로운 발전과 번영,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용왕산 해맞이 행사 중 '희망의 대북 타고'



용왕산 해맞이 행사 중 주민들이 '소망 풍선 날리기'를 하는 모습

안양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명절로, 양천구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민속놀이를 하며 즐기는 주민 축제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다. 50만 양천구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소리와 검무, 외줄타기 등의 전통 공연부터 난타, B-BOY댄스 등의 다양한 현대 공연이 펼쳐지며, 곳곳에서 떡메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체험 행사도 열린다.

밤이 되면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의 대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린다. 50만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달집이 점화되고 수백 발의 폭죽이 안양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아울러 양천구민들이 희망을 담아 직접 작성한 소원지가 태워져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안양천 정월대보름 행사 중 '달집 태우기'

목2동에서 행해진 민속놀이 및 풍속

목2동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촌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절기에 따라 다양한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을 함께 즐겼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정리해 보았다.

세찬계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 고기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 세찬계의 풍속이 있었다. 평소에 동네 사람들끼리 얼마간의 돈을 모아 그 돈을 돈놀이를 하여 불려서, 명절 때 소나 돼지를 잡아 계원들끼리 나눠 가져 명절을 지냈으며, 고기는 향아리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초상계

집안의 큰일을 당하면 동네 사람들끼리 조금씩 도와서 일을 치르는 상부상조의 풍습이 있었다. 목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상을 당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집에 있는 쌀을 두량(斗糧)으로 한 말(10리터)씩 초상집에 갖다 쥐 상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하였으며, 계원들은 상여를 메고 묘소까지 운구를 하였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짚에 불을 붙여 달님을 보며 소원을 비는 달집 태우기와 긴 줄을 맨 빈 짱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 돌리는 쥐불놀이를 즐겨 하였다. 동네별로 남자들은 윷놀이를 하였는데, 윷고 즐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듯 하였다. 부녀자들은 쌀을 한 뒷박씩 걷어 그걸 모아 널을 사서 널뛰기를 하였다. 널은 2미터가 넘었으며 흙을 담은 가마니를 받쳐놓고 가운데에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거나 양쪽에 줄을 매서 잡고 뛰었다.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산신제

새말 지역에서는 용왕산 자락의 허씨네 산(지금의 법무단지 주변) 아래 성황림에서 매년 10월경에 집집마다 돌아가며 산신제를 지냈다. 성황림이라는 숲 안에 성황당(작은 서낭당, 당집)이 있었고, 벧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만든 주저리 안에 향아리를 넣고 그 안에 쌀과 과일을 넣고 잘 갈무리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새것으로 바꾸었다. 산신제는 숲에 마을과 주민을 보호해 주는 산신이 살면서 마을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아래 민속적 관습에 의해 제사를 모시는 것이었다. 제주가 산신제를 모시고 나면 동네 사람들끼리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양천 허씨시제

법무부단지는 양천 허씨 종중산이었는데, 이곳에서 허씨네 시제를 지냈다. 시제란 음력 3, 10월 중에 날을 택하여 대신(代盡)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 번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이다. 양천 허씨의 시제 날은 마을의 잔칫날로,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양천 허씨 종중산은 해태상과 미륵상이 있어 아이들의 놀이터도 되고, 마을 한량들은 활쏘기 대회도 열고 가무를 즐기며 놀았고, 이낙네들은 그네를 걸어 그네 대회도 열었다.

50만 구민이 하나 되는 양천구민의 날

매년 5월 16일은 양천구민의 날이어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양천구민의 날은 1988년 1월 1일 양천구가 강서구로부터 분구되고, 그해 5월 16일 양천구청이 개청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된 것으로, 50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해 해마다 다양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다.



양천구민의 날 '열린 음악회' 모습

축제는 매년 주제를 달리 하여 진행되는데, 민속,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실 행렬, 열린 음악회, 마라톤 대회, 테마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양천구의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경로 효친 사상 고취하는 경로잔치

매년 10월 경로효친의 달이 되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음식과 초청 가수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자치회관 수강생의 경기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특히 자원봉사자, 직능단체 임원,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목2동 주민의 어르신 공경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경로잔치 모습

화합과 축제의 장, 동민 체육대회

하늘이 푸르고 날이 선선해지는 10월이면 목2동 소재의 양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로잔치와 함께 동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목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의 동민들이 참여하여 럭비공 차기, 협동줄넘기, 줄다리기, 2인3각달리기 등 다양하고 신나는 체육 행사와 국악, 민요, 라인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펼쳐 친목과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을 연다.



동민 체육대회 중 줄다리기 모습

여름 나기 기원, 어르신 삼계탕 대접

매년 여름 목2동에서는 일년 중 가장 더운 때인 삼복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연다. 어르신 삼계탕 대접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삼계탕을 준비하고 어르신들께 연락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초복 날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함으로써 무더운 여름을 무난히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어르신 공경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이어 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모습

아름다운 마을 축제, 모기동 축제

'모기동'은 양천구 목2동을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젊은 감성이 두드러지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애칭 삼아 2011년 시장 근방의 마을 카페 '숙영원'을 중심으로 동네 주차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소박하게 시작한 축제가 바로 '모기동 축제'이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마을 축제로, 행사장 곳곳에서 베풀어

장, 먹거리 장터, 수공예 아트마켓과 작품 전시를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꾸미는 문화 예술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빗그림 공연, 젊은 인디밴드의 공연 등 작지만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하며, 이웃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가 축제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등, 사람 사는 재미가 물씬 풍겨나는 즐거운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으로 발굴되어 목2동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축제가 되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용왕산에서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모기동 축제의 한 장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연



인디밴드의 공연

마을 예술 잔치, 영진목욕탕 작품전시회

영진 목욕탕은 목2동 528-8에 소재한 마을의 아주 오래된 공동 목욕탕으로, 마을 주민들의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러한 영진 목욕탕이 내부 보수 공사로 임시 휴업을 하는 기간 동안(2015. 8.1~8.5) 마을 주민들과 예술인이 뜻을 모아 남탕, 여탕에 목욕물 대신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추억이 깃든 놀이를 하는 작품전시회 및 공연을 열었다.

1층 여탕은 '기억과 추억'이란 주제로, 예전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놀이터로 꾸며 탈의실 체중계에 몸무게를 달고, 땅따먹기를 한 뒤, 목욕탕에 들어서면 물속에 돌 던지기와 사우나실 보물찾기를 하는 등의 체험 행사로 꾸며졌으며, 2층 남탕에서는 '친숙함과 은밀함의 사이에서'란 주제로 동네 주민 9명의 방을 직접 찍은 사진이 담긴 티셔츠를 전시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행사를 기획한 것은 목2동의 젊은 문화예술단체인 플러스마이너스1도씨로, 동네는 한해가 다르게 변해 가지만, 그 속에서도 이웃과의 끈끈한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을 담고자 했던 것이며, 주민들은 전시와 공연을 감상하며 추억에 젖는 시간을 누렸다.



영진목욕탕 작품전시회



Mok 2(i)-dong History

05

내 고장 인물

교육과 복지에 헌신한, 박순신 여사

제7대 대법원장, 이영섭

피의 능선 전투의 주역, 황엽

전 헌법위원회 상임위원, 이영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민병돈

전 양천구청장, 이훈구

목2동 월촌 부락의 토착 성씨들



내 고장 인물은 목2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뿐 아니라 목2동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주하여 목2동에 거주하면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교육과 복지에 헌신한
박순신 선생 (1904~1950)

박순신 선생은 선교와 복지에 힘쓰다 순교한 여성 교육자이다. 1904년 연해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15년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정착하였다. 1928년에 경성여자상업학교(현 서울여상)를 졸업하고, 협성여자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 전신)를 수료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였다.

그러다 양동면 목동리에 정착하여 1948년 4월 목동교회 내에 '성애공민학교'를 설립, 초대 교장을 맡으면서 교회 주변의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는 한편 김포군 부인회(강서, 양천)를 결성하여 교육 및 여성 복지에도 많은 애를 쓰셨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터지고, 국군의 9.28 서울 수복에 앞서 제자들과 함께 국군을 환영하기 위한 태극기를 만들던 중 9월 20일 목동교회 사택에서 공산군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셨다.



제7대 대법원장
이영섭 (1919~2000)

이영섭은 대한민국 제7대 대법원장을 지낸 인물로, 1919년 11월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에서 출생하였다. 1932년 전라남도 광주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43년 경성대학(현 서울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으며, 그 해에 일본 고문사법과(高文司法科) 사법관 시보(경성지방법원)에 합격하였다.

1945년에는 경성지방법원 판사에 취임하였고, 194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으며, 1950년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그 후 1952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 교수에 취임하였으며, 1957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경학회(燕京學會) 초청으로 같은 대학 법과대학에서 '소송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1960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61년 9월에는 대법원 판사에 기용되었고, 1979년 3월 21일 제7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저서로는 「민법총칙」, 「민사소송법」 등이 있으며, 총 19년 8개월간 대법원에서 일하여 대한민국 역대 최장수 대법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피의능선 전투의 주역

황엽 (1921. 9. 14 ~ 2015. 12)

황엽은 6.25 전쟁 당시 '피의 능선 전투'에서 연대장으로 직접 전투를 지휘한 예비역 소장이며, 1963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한 체육 인이기도 하다.

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양구의 983·940·773 고지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휴전을 앞두고 북한군과 국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여 서로 뺏고 빼앗기기를 거듭한 끝에 결국 수 많은 사상자를 내고 국군이 적의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기념비적인 전투였다. 피의 능선은 북한군이 국군의 후방 지역까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국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전력을 총동원해 목표물을 탈취하는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황엽 전 장군은 현재까지 목2동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2015년 12월 2일 돌아가셨다.



전헌법위원회 상임위원

이영환 (1921. 11 ~ 2010. 5)

이영환은 1921년 11월 경북 성주에서 출생하여 일본 와세다대 법과를 졸업했다. 그 뒤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50년 부산지검 검사로 검찰에 투신,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68년에는 청주지방검찰청장을 역임했으며, 197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1973년 대검찰청 차장검사, 1977년 광주고등검찰청장, 1979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역임했으며, 1981년부터 1987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법조계의 거목이다.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민병돈 (1935 ~)

민병돈은 1935년 출생하여 서울 휘문중학교를 다니다 3학년 때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6개월 동안 학도병으로 참전 뒤 복학하여 고교 과정을 마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육사 15기로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다. 소령 시절인 1970년에는 9사단 29연대 작전 주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87~1988년에는 육군사관학교장과 특전사령관, 육군정보참모부장을 역임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육사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라는 지시에 정면으로 맞섰던 강직한 참군인으로 평가된다.



전 양천구청장

이훈구 (1949. 2. 5 ~)

이훈구는 1949년 출생 11대째 거주하는 마을 토박이 원로이다. 1972년 동네 청년들이 모여 청춘협의회를 구성하여 총무를 맡아 보면서 달거리 노인정 건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1991년 4월 제1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양천구의회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11년 동안 3번의 구의원을 지냈으며, 2000년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어 2003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다. 그 후 2006년 7월 제4대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어 2007년 1월까지 양천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17년 동안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다.

목2동 월촌 부락의 토착 성씨들

목2동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대를 이어 가며 마을을 이루어 산 토착 성씨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성씨로 전주 이씨와 덕수 이씨, 해주 최씨 등이 있으며, 그 세계(世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수 이씨는 1592년 이광(李廣)이 안달거리 마을에 정착하였고, 전주 이씨는 1624년 이치(李穰)가 바깥달거리 마을에, 해주 최씨는 1894년 최재화가 목2동에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후손들이 살아오고 있다.

전주 이씨

시조	이한(李翰)	654년 ~ 신라 태종(무열왕) 시대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년 ~ 1408년
정종	이경(李儼)	1357년 ~ 1419년
태종	이방원(李芳遠)	1368년 ~ 1422년
세종	이도(李洵)	1397년 ~ 1450년
문종	이항(李恒)	1414년 ~ 1452년
단종	이홍위(李鴻偉)	1441년 ~ 1457년
세조	이유(李維)	1417년 ~ 1468년
예종	이황(李滄)	1450년 ~ 1469년
성종	이혈(李袞)	1457년 ~ 1494년
이성군	이관(李貫)	1489년 ~ 1552년 (성종의 9째 왕자, 중종의 아우)
운성군	이수철(李壽鐵)	1515년 ~ 1566년 승헌대부
해풍군	이기(李基)	1532년 ~ 1594년 현록대부, 도총관
순정군	이경량(李景良)	1552년 ~ 1594년 창선대부
이정군	이정국(李正國)	1592년 ~ 1625년 진사
이치(李穰)	1624년 ~ 1671년 목동(월촌)에 정착	
	이희담(李希聃)	1668년 ~ 1745년
	이만화(李萬和)	1713년 ~ 1792년
	이영각(李永愨)	1736년 ~ 1789년
	이언수(李彦秀)	1770년 ~ 1824년
	이종묵(李宗默)	1797년 ~ 1839년
	'재(載) 자	1818년 ~ 1893년
	'진(鎭) 자	1845년 ~ 1921년
	'순(淳) 자	1870년 ~ 1954년
	'훈(薰) 자	1907년 ~
	'구(九) 자	1927년 ~
	'우(雨) 자	1946년 ~
	'형(珩) 자	1975년 ~

'이치(李穰) 목동 정착 후부터 '훈(薰) 자, '구(九) 자, '우(雨) 자, '형(珩) 자 자손이 현재 목2동에 거주

덕수 이씨

시조 이돈수(李敦守)	1202년 고려(신종)시대
이변(李邊)	1391년 ~
이효종(李孝宗)	
이찬(李璣)	1455년 ~
이자하(李自夏)	1477년 ~ 1535년
이치(李致)	1504년 ~
이사성(李師聖)	1525년 ~ 1575년
이광(李廣)	1592년 목동(월촌)에 정착
이명달(李命達)	1576년 ~ 1654년
이보(李葆)	1611년 ~ 1672년
이지발(李之發)	1647년 ~ 1715년
이목(李睦)	1687년 ~ 1733년
이한진(李漢鎭)	1713년 ~ 1755년
이박(李薄)	1744년 ~ 1780년
이인모(李寅模)	1785년 ~ 1847년

'노(魯) 자 | '신(信) 자 | '민(敏) 자 | '영(永) 자 | '종(種) 자 | '열(烈) 자

'이광(李廣) 목동 정착 후부터 '종(種) 자, '열(烈) 자 자손이 목2동에 거주

해주 최씨

서운부정공파(書雲副政公派)

시조 최온(崔溫)	960년 고려 경증시대
최윤(崔胤)	1414년 ~ 1462년
최후근(崔厚根)	1454년 ~ 1482년
최징(崔澄)	1476년 ~ 1520년
최작(崔作)	1495년 ~ 1526년
최천손(崔蓀)	1513년 ~ 1542년
최덕성(崔德成)	1535년 ~ 1600년
최심(崔暹)	중종 시대
최응양(崔應亮)	1601년 ~ 1670년
최영익(崔英益)	1635년 ~ 1696년
최진태(崔鎭泰)	1667년 ~ 1742년
최인서(崔仁瑞)	1694년 ~ 1763년
최상급(崔尙級)	1720년 ~ 1791년
최윤항(崔胤恒)	1748년 ~ 1808년
'종(宗) 자 '헌(憲) 자 '숙(瑒) 자	최숙(崔瑒) (1832년 ~ 1883년) 목동(월촌)에 정착
'재(載) 자 '현(鉉) 자 '영(永) 자 '식(植) 자 '수(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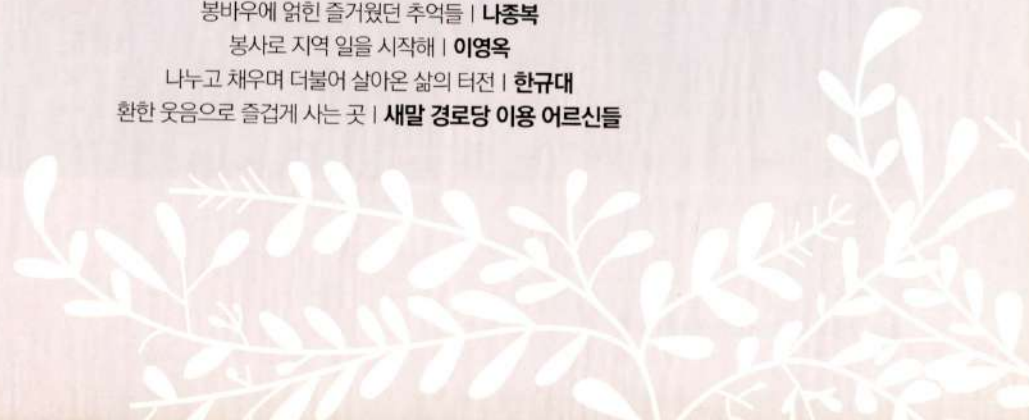
최숙(崔瑒) 목동(월촌)에 정착 후부터 '영(永) 자, '식(植) 자, '수(秀) 자 자손이 현재 목2동에 거주



06

마을 원로들의 생생한 이야기

다섯 마을이 있어서 오목동 | 나종선
 덕수 이씨 월촌 양반이 정착한 땅 | 박홍득
 정 깊은 사람들이 나누며 살던 마을 | 이명인
 엄지마는 따뜻한 마을 | 최영태
 통장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봉사 | 유성고
 어려운 분들이 이사와 부자 된 마을, 엄지마 | 이응환
 부녀회 교육 받고 후기로 일등상 받아 | 이태인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활동해 | 최영철
 목2동은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 | 양경석
 6.25의 아픈 역사도 체험해 | 엄병호
 몇 차례에 걸쳐 확장된 공항로 | 이종영
 한번 정착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 | 황영주
 세찬계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 신영자
 영진목욕탕이 마을의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 강의순
 헤드스타트 이념 도입해 개원한 다솜어린이집 | 한경애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성문교회 | 한용권
 제2국민병으로 부산까지 갔다 오기도 | 이윤구
 신의와 열정, 기다림으로 마을 위해 일해 | 이훈구
 전쟁에도 말쑥했던 우리 마을 | 이길훈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땅 | 최영우
 건축일 하며 마을 위해 활동해 | 김영진
 토박이는 아니지만 애착 가는 마을 | 이종덕
 35년간 한자리에서 마을의 변화 목도 | 이종관
 달거리 경로당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추억 | 달거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통장 일 하며 마을 사정 속속들이 알게 돼 | 정정기
 봉바우에 얽힌 즐거웠던 추억들 | 나종복
 봉사로 지역 일을 시작해 | 이영옥
 나누고 채우며 더불어 살아온 삶의 터전 | 한규대
 환한 웃음으로 즐겁게 사는 곳 | 새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다섯 마을이 있어서 오목동



나종선

(나주 나씨, 1947년 출생,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거주)
인터뷰 일시: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옛날엔 이곳을 오목동이라고 불렀다. 동네 순번대로 말하자면 월촌(달거리), 신촌(새말), 나말, 모새미, 마장 이렇게 다섯 부락이 형성되어 거주하였다. 월촌(달거리)은 바깥달거리와 안달거리가 있는데, 염창역 3번 출구를 기점으로 공영주차장 뒷길을 따라 효성아파트까지 양화교 쪽을 바깥달거리라 하고, 그 반대쪽 양화초등학교 쪽을 안달거리라 하였다. 달거리마을은 감나무가 많았고 이씨 집성촌이었다.

신촌(새말)은 목양교회를 기점으로 마을버스 길을 따라 목동문화체육센터 언덕까지를 말한다.

새말부락에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쪽 근처에 발동기로 도정하는 정미소가 있었고, 전기가 공급된 후에는 목양교회 옆 우마루 음식점 근방에 전동기를 이용하는 정미소가 있었다. 새말 지역에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을 메워 마차길로 사용하였고, 지금의 법무부단지 자리는 허씨 종중산이 있던 곳이다. 산소와 넓은 잔디로 돼 있었는데, 산을 깎아 마을 단지를 만들었다. 거기서 파낸 흙으로 인공폭포 건너

편목동 쪽을 메웠다

나말은 효성유치원부터 대일고등학교 앞 목동시장 쪽을 포함한 지역이었는데, 뒷나말과 아랫나말로 구분된다. 양씨 집성촌으로 밤나무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개발되면서 뿌리를 자르다 보니 나무가 고사해 버리고 말았다. 6.25 때는 영국 군인들이 나말에 들어와 있었다. 모새미는 영도초등학교 정문 앞쪽을 말한다. 제성병원(현재 흥익병원 목동관) 뒤쪽부터 목동아파트 앞까지를 마장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계를 하며 서로 돕고 살았는데, 세찬계는 계원들이 동네에서 소를 잡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계고, 초상계는 마을에 초상이 나면 계원들이 모두 함께 도우면서 상여 메고 산소까지 운구하곤 했다.

명절도 함께 즐기곤 했는데, 단오 때는 잔디가 깔려 있는 허씨 종중산에서 단오 축제를 했다. 씨름은 학교 운동장이 이용해서 했다. 대보름 때는 실탄을 가지고 놀이하다 불내고 다치기도 했다.

6.25 때는 산 밑에 방공호를 파서 피신했다. 나말에는 대포로 거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용왕산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겠다. 공동묘지에 있던 시신이 용으로 승천하려고 별판을 지나 길을 뚫고 나가는데, 그때 배가 아닌 명주를 사용해서 실패해 아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엄지미에는 호랑이 굴이 있었다.



법무부단지(허씨네 묘)

봉바위에서



봉바위 밑(목동 새말동네 아래)

봉바위에서. 뒤쪽으로 목동별판이 보인다

덕수 이씨 월촌 양반이 정착한 땅



박흥득

(월성박씨, 일제강점기때 남경당산정(현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출생하여 한살때 현 거주지 목2동으로 이사)
인터뷰 일시: 2015년 6월 9일 화요일

김포군 양동면 면소재지(현재 가양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를 다니다 1950년 6.25전쟁이 나는 바람에 피난을 갔다가 동란 중 당산초등학교를 다녔다. 1950년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시험을 치러 서울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나 갈 수 있었다. 영등포 지역에는 영등포중학교, 성남중학교, 낙양중학교, 동양중학교, 영도중학교, 영등포여자중학교, 장훈중학교 등이 있었고, 고등학교는 장훈고등학교나 낙양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목동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영등포구가 되었는데, 당시 달거리에는 덕수 이씨가 많이 살았다. 덕수 이씨 조상 중에 조선 시대에 큰 벼슬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이광(李廣 1592년)이요, 호가 월촌(月村)이었다. 월촌 양반이 벼슬을 하면서 나라로부터 이곳의 많은 토지를 상으로 하사받아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어릴 적인 1950년대만 하더라도 가양동이나 발산동에 계신 분들이 이곳 덕수 이씨 분들을 보면 “달거리 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들었다. 월촌이라는 호가 마을 이름이 된 거다. 월촌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달동네 혹은 달거리이다.

조선 시대에서 1952년까지 월촌이라고 불렀다. 월촌을 상호

로 최초 사용한 것은 1962년 ‘월촌이발소’가 처음이고, 그다음으로 식품점인 ‘월촌상회’가 있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마을 이름을 붙였다. 염창동에 ‘염창이발소’, 새말에는 ‘새말이발소’, 달거리에는 ‘월촌이발소’가 있는 식이다.

당시에는 시골에서 처음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식품점인 ‘월촌상회’가 기점이 되어 동네길을 안내하였다. 지금의 목동중앙본로30길 35(목2동 533-10)건물이 바로 그 위치이다.

목2동 533-22호 두산빌라 뒤에 있는 향나무는 월촌 이광이 심었다고 전해오는데, 덕수 이씨 월촌 양반 종갓집에서 매년 가을에 향나무 밑에서 떡을 해 놓고 재를 올리고 하였다. 그 나무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중히 여기며 모셨다. 그 후 집안이 몰락함에 따라 재를 지내는 사람도 없고, 세월이 지나니 나무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 향나무는 목2동 월촌의 수호신으로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약 80년 가까이 덕수 이씨 종갓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으로 살면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안다. 종갓집은 토담, 이엉을 올려서 담장을 조성했는데, 6.25 때 폭격으로 집이 다 타고 안채만 남았다.

용왕산은 본래 왕재산(저수지 탱크가 있는 산)과 암매산(건영 아파트 쪽 산)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근방이 엄지미 동네였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수철너머’라 불렀다. 수리조합, 변전소, 송전선, 철탑이 있어서 ‘수철너머’라고 부른 것이다. 엄지미 뒷산이라 엄지미산이라고도 했는데, 엄지미 동네는 일제강점기 때 생긴 부락이다.

용왕산은 왕재산이라고도 했는데, 여우굴과 공동묘지가 있고 여우가 많았다. 여우 굴에서 불이 나면 인공폭포(취산)에서 연기가 난다고 했다. 본각사쪽 공동묘지 밑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물을 받으러 오곤 했다.

대일고등학교 쪽인 나말은 양씨 집성촌이었다. 모세미는 영도초등학교 쪽, 마장은 제성병원 뒤쪽이었는데 김씨촌이었다. 목동중앙교회 쪽이 이씨 뒷산이고, 법무단지는 허씨 종산, 염창역 앞 상가가 덕수 이씨 종산이었다. 그리고 효성아파트 쪽은 썩댕이 밭, 동주민센터가 있는 곳은 동대골로 논과 산이었고, 왕자아파트(현재 목동금호베스트빌아파트) 쪽은 황새머리, 파출소 쪽은 일제시대 이후 정원사분이 물려받으셨다. 복지관 밑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정원수를 많이 심어 관리하는 집이 두 채 정도 있었다. 그곳을 ‘응골’이라고 했다. 양천길은 비포장 도로였는데, 마을마다 부역을 나오게 해서 자갈 깔고 도로를 보수했다.

5.16혁명 이후 새마을 운동 시기에는 시장 뒷길에 영단주택을 지었다. 정부에서 8만원을 융자해 줘 시멘트 벽돌과 흙벽돌로 개보수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다. 골목길은 서울시 구획 정리 이후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거다.

달거리 경로당은 체비지(시터)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희영님과 박병우님이 폐차장에서 버스를 구입하여 체비지에 놓고 최초로 경로당을 만들었다. 그 후에 할머니 경로당도 시 체비지에 건축하였다.

정 깊은 사람들이 나누며 살던 마을



이명인

(공주 이씨, 아버님이 20대 후반부터 거주하심. 본인은 공덕동에서 출생 후 한살 때 이주)
인터뷰 일시: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9살 때 6.25가 났다. 하지만 전쟁이 난 것은 3일 뒤 포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다. 당시엔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집은 마장안으로 피난을 갔다. 강북에서도 그곳으로 피난을 왔는데, 마을의 어떤 가족은 몰살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인민군들은 어깨에 멘 장총이 땅에 끌릴 정도로 어린 청소년들이었고, 부상병들도 많았다. 인민군들은 옷나말양씨 집성촌의 수령이 6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아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장백산 줄기줄기...” 하는 북한 노래도 가르치고 사상 교육을 시켰다. 느티나무는 지금은 자연고사하여 사라지고 없다.

예전에는 영등포와 양천구가 경계가 없었다. 안양천에 독을 쌓고 일본인들도 들어와 살아 마을을 이루었는데,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원래 수로였다. 지금의 단지 쪽은 70만 평 되는 논밭이었는데 한강물을 퍼서 올려줘야 농사를 지었다. 가을이 되면 논밭에서 추수한 벼짚단을 쌓아 놓으면 동네가 어두울 정도로 많은 수확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2년도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강제 수용되어 논밭이 다 없

어졌다. 추수 후에는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을 정도로 많은 시루떡을 해서 고사도 지내고 함께 나눠 먹었다. 그렇게 정이 깊은 분들과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신정초등학교 6회 졸업생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칼산 사이에 있는 50m 높이의 쪽박산(현재 신정2동 명지해드너 아파트)에 있던 일본인 창고를 수리해서 학교를 세워 그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했다.

월촌상회 앞쪽으로 여러 갈래 길이 있었고, 동사무소 뒤쪽은 소나무 숲이었는데 큰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 지금의 양화초등학교 자리도 다 논밭이었고, 우성아파트와 신목동역 사이 용왕산 밑에 채석장이 있었다. 식약청 자리에 배수펌프장이 있었고 엄지미(현재 우성아파트)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박순신 전도사는 목동감리교회 창시자인데, 6.25 당시 전도를 위해 피난을 안 가고 자택에 계시다가 인민군에게 총살당했다.



관훈상제 때의 동네 잔치 모습



천호지벌에서 바라본 용왕산



엄지미는 따뜻한 마을



최영태

(72세, 해주 최씨, 할아버지부터 5대째 거주)
인터뷰 일시: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엄지미 마을에서 태어났다. 엄지미 마을은 지금의 우성아파트 자리인데, 전주 이씨와 신씨 성의 16~17가구가 살았다. 엄지미 마을은 삼태기 모양으로 폭 안겨 있는 모양이어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곳이었다.

분구되기 전에는 목2동 동사무소가 엄창동, 등촌동, 김포와 목동 전체를 관할한 유일한 동사무소였다.

초등학교는 어렸을 당시 신정초등학교와 당산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나는 당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목동 사는 학생들은 영등포에 나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강화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영등포역과 용산까지 운행되어 그 버스를 타고 다녔다. 버스정류장은 양화교 바로 앞 우측에 있었다.

새마을 사람들은 오목교 쪽으로 건너서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새마을에는 경씨, 나씨, 이씨가 살았고, 새마을에 있는 방앗간은 발동기를 돌려서 운영했다.

본각사는 처음의 이름은 영전사였다. 내가 어렸을 때 생겼는데,

성문교회 밑에 칠성사라는 절이 새로 생긴 뒤로는 동네분들이 칠성사를 많이 이용하였다.

본각사 뒤로는 다 공동묘지다.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내려온 약수가 부스럼도 잘 낫고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외지사람들도 물을 받으러 많이 왔다. 본각사는 여기서 나오는 물로 목욕탕까지 만들어 이용했다.

법무부 단지에 옛날에 이영섭 대법원장이 거주했는데, 그때 주변을 경찰들이 경비했었다.

통장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봉사



유성고

(71세, 1980년 2월에 이주하여 36년째 거주)
인터뷰 일시: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1998년에 통장을 하면서 지역 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11통 구역을 책임 맡았는데, 220~230번지로 내려가는 길에 방앗간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지금 관상수 심어 놓은 곳에 소키우는 곳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연탄으로 난방하는 곳이 3~4채 있다.

당시 통장의 역할은 구청 고지서를 전달하고 전입·전출시 통장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는 정도였다. 지금은 마을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2000년에 통진회 회장을 하면서 목동복지관 노현철 관장님과 다른 통장분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를 했다. 당시엔 지금과 같은 최신식 설비가 아닌 석유스토브를 이용해서 식사를 준비해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했다. 그때 봉사자도 없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꾸준히 봉사했다. 새마을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방역 활동도 8년간 했는데, 18개동에 2개뿐인 방역차를 이용해서 목동 지역 전체를 방역했다. 당시엔 경유로 방역을 해서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도 심했다. 그래서 방역하기 전에 소방서에 보고하고 했다. 주변에서

불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각각 차량이 배치되어 있어서 원활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마을 운동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 도움을 받았다면 현재 뉴새마을 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으로 대학생 포럼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도 함께 참여를 하여 지역 발전과 주변의 환경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2000년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신설해서 현재 8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행정 업무 위주였던 곳을 지역문화의 공간으로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왕산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산이다. 주민 생활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목2동의 자랑거리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격년제로 이루어졌던 동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그리고 기존의 상업시설을 재건축해서 상업적 번영이 이루어지고 동네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어려운 분들이 이사와 부자 된 마을, 엄지미



이응환

(성주 이씨, 1972년에 엄지미로 이주)
인터뷰 일시: 2015년 7월 1일 수요일

1976년에 통장을 하며 많은 일을 했다. 통장의 기본 업무인 전 출입도장 찍어 주고 한자로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하기를 꼼꼼히 했다. 반공연맹에 가입해서 땅굴 견학도 다녔다.
엄지미 마을엔 최씨, 김씨, 이씨 분들이 많이 사신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이사 오셔서 부자가 되어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생활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도 욕심내지도 않는다.
마을 안에 변전소가 있어서 전기가 일찍 들어와 집집마다 환하게 살았다. 전기가 풍족하긴 해도 물은 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큰 도로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이용했다.
새마을 운동 때는 도로에서 캠페인 청소도 하고, 도로 확장과 정비를 해서 마을이 크게 달라졌다.



엄지미 마을 모습(현재 목동우성아파트가 건립되었다)

06 마을 원로들의
생생한 이야기

부녀회 교육 받고 후기로 일등상 받아



이태인

(공주 이씨, 할머니 때부터 5대째 거주)
인터뷰 일시: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나와 남편 모두 마을의 토박이다. 낭만적인 연애를 거쳐 결혼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5.16혁명 이후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당시 수리조합장이던 양형석의 추천으로 김포군 양동면에서 부녀회 교육을 받았다. 부엌 개량, 화장실 개량 등 실무적인 것과 마을의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교육 후 시험을 보고 후기를 썼는데, 마을의 다른 참가자들을 제치고 일등의 영예에 올랐다. 상장과 상금으로 돼지 2마리를 받아 마을의 명예를 한껏 드높였다.

산 밑에 수로가 있어서 그 물로 채소를 씻어 먹고 여름엔 시원하게 수영도 하고 즐겼다.

1963년부터 3년 동안 고아원 봉사를 했다. 1990년대에는 시온아코디언 선교단에 들어가 개척교회들을 다니며 연주를 했고, 1996년에는 고아원에서 봉사한 경험을 살려 '새마을동네 꽃사슴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교육도 이수했다. 60이 넘어 만학으로 교육을 받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뒀다. 그리스도대학 학점은행에서 교

육을 이수했다. 2009년에는 경로당의 연혁과 회칙을 정리하고, 2013년 경로당의 총무를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수급 받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3번 밥해주는 일도 하고, 경로당 몇 개를 묶어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가스·전기·소방 안전관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다. 새마을경로당 회장님은 구청과 지회에서 상도 받았다.

사람들이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노사연의 노랫말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 맘에 와 닿는다.

박순신 전도사는 김포군 정준 국회의원과 함께 부녀회장 할 때 봉영여중 설립에 참여하시는 등 교육에 남다른 뜻을 갖고 계셨다. 목동감리교회에서 성애고등공민학교를 세워 마을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셨다. 박순신 전도사님은 교회에서는 순교자요, 나라에서는 애국자로 추앙받아도 될 만한 분이라 생각한다.

옛날을 생각하다 보니 널뛰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계 하듯이 쌀을 조금씩 모아 정월에 널을 사서 널을 뒀다. 널 뒀 때는 가운데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주고, 서투른 사람은 옆에 줄을 매서 잡고 뒀다. 정월 대보름은 동네 큰 잔칫날이었다. 윷놀이 할 때면 남자들의 고함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듯 대단했다. 세월을 거슬러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널이 엄청 길었다.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활동해



최영철

(경주 최씨, 1971년부터 거주)
인터뷰 일시: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방위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마을 유지들이 모여 예비군 동대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비상시에는 동대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대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단체의 하나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단체와 주민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매월 26~30명에 이르는 자치위원들이 동의 결정 사항을 의결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서류 제출, 심사, 면접을 통해 2년마다 선출한다.

새마을협의회는 마을의 정리정돈을 책임지는 봉사단체이다. 공항로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인 만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귀빈들의 영접을 위해 새마을협의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환영행사에 많은 참여를 했다.

제일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양동중학교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 25명씩이 당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년간 제공하였고, 오전 11시부터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1970년대에 처음 거주할 때만 해도 이곳은 초가집도 많고 농토가 많아서 시골 마을 같은 곳으로, 정이 많고 단합이 잘 되는 곳이었다. 마을의 토착민들과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조화를 이뤄 편안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목2동은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



양경석

(남원양씨, 충북 영동에서 출생)
인터뷰 일시: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태양공인중계사

건축 일 하시는 당숙의 연고지가 목동이라 당숙을 따라 1970년대에 이사와 자리를 잡았다. 처음 이사왔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양화교 못 가서 파출소와 초소가 있었다.

1970~80년대에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는데,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많아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런데 무분별한 건축 허가와 불법 증축으로 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염창동 쪽에는 보세공장과 회사가 많아 현 삼성전자 쪽 동산에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즐기기도 했다. 골목시장도 활성화되어 있고, 수공업 하는 지하 공장이 많아 주민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주민의 자녀들은 양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양동중학교나 월촌중학교를 거쳐 마포고등학교와 경북여고를 주로 다녔다.

유명인으로는 황엽 장군이 마을에 사신다. 6.25 때 5사단 연대장으로 역임하였고, 육군 소장으로 퇴임하신 분이다.

몇 차례에 걸쳐 확장된 공향로



이종영

(덕수 이씨 48대손, 25대부터 정착하심)
인터뷰 일시: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6.25가 났을 때 나는 일곱 살이었다. 마차로 피난을 가는데, 동생 다섯을 데리고 충청도까지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서야 올라왔다. 용왕산에 미군 1개 대대(200~300명)가 주둔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는 달거리 아이들은 현재의 기양동에 소재한 양천국민학교에 다녔고, 안골 아이들은 당산국민학교, 엄지미와 새말 아이들은 신정국민학교를 다녔다. 학교까지 10리 이상 먼 길을 걸어서 다녔는데 겨울에는 길도 멀고 특트인 공간이라 추워서 다니기가 힘들었다.

중학교는 지금처럼 근거리 학교가 배정되는 게 아니고, 시험봐서 용산, 성남, 영등포 등에 있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현재 롯데 캐슬 쪽에 가건물을 설치해 국방부에서 기관차와 대포 등을 전시했었다. 20대 전후 해서 대보름 때는 안골하고 같이 20~30명이 모여서 잔치하고 불꽃놀이 하고 장작을 피워 동네를 환하게 밝히고 놀았다.

공향로는 1960년대에 한번 확장돼서 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고, 1980~85년에 걸쳐 2차 확장되어 4차선으로, 1990년에 확장되어 지금의 공향로 모습이 되었다.

마을의 큰 어른으로 이두영, 이희영, 이문영님이 계신다.

6.25의 아픈 역사도 체험해



엄병호

(영월 엄씨, 1942년 김포군 양동면 엄창리 191번지에
서출생)

인터뷰 일시: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할아버지 때부터 엄창버스정류장, 옛날 양조장 근처에서 살았다. 엄창에는 독 만드는 가마가 3군데 있고, 엄창 100번지일대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다.

양천초등학교 2학년 때 6·25가 나서 피난살이를 했다. 1·4후퇴 피난길에 사람이 많아서 해가 저물도록 걸어도 시흥 근처까지밖에 못 가고, 눈에 있는 벼집을 쌓아 그 속에서 15명 식구가 하룻밤을 자고, 또 피난길에 올라 반월까지 가다 유엔군과 군인을 만나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피난 갔다 돌아오니 동네 어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며 빨갱이 앞잡이라고 몰매를 쳐서 현장에서 죽는 것도 목격했다. 전쟁 때 인민군들 중에는 어깨에 멘 장총이 땅에 끌릴 정도로 어린 군인들이 많았다. 지금의 엄창초등학교와 취산(현재 양화교 건너편 인공폭포 산) 사이에서 총알이 무수히 발사되어 당시 나무가 없던 용왕산의 총 맞는 자리에서 먼지가 풀풀 이는 모습이 집에서 다 보일 정도였다.

형과 함께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 먹일 풀을 베러 다리 건너 인공폭포 쪽으로 가서 풀을 베어 김포 쪽 다리를 건너오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서 있으려니 어린 인민군이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비행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폭포 쪽 다리를 폭파하려고 폭탄을 투하해서 밧일 하던 사람 여럿이 죽는 모습도 보았다. 마을이 전쟁의 격전지여서 하루는 인민군이, 하루는 군인이 점령하곤 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나중엔 외국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야 아이들이 군인들 트럭을 쫓아다니기도 했다. 미군 76부대가 인공폭포 돌을 깨서 김포 활주로를 깔았다. 지금의 인공폭포는 영등포구고 다리가 외다리라 차가 한 대씩밖에 지나다닐 수 없어서, 영등포에서 김포 쪽으로 오는 차가 있으면 김포 쪽에 있던 차는 그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건너가곤 했다.

인공폭포 자리는 영등포, 다리 건너는 김포군이라 인공폭포 쪽에 영등포와 김포군의 합동 검문소가 있었다. 검문소 뒤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자전거 수리점이 있어 합동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영등포 순경, 김포 순경, 헌병들에게 식사와 잠 자리를 제공했다.

용왕산은 공동묘지였다. 엄창, 증미, 등촌, 목동, 월촌, 영등포, 양평동, 양남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묘지였다. 여기서 나는 약수는 송장 썩은 물로, 옛날엔 별다른 약이 없던 시절이라 이 물이 병을 낫게 한다고 믿어 이 물을 길어다 밥을 해 먹

었다. 4월 초파일이면 영등포, 당산, 양평동, 엄창, 목동, 등촌 사람들이 절도 있고 넓은 공터도 있는 이곳에 와서 놀다가 곤 했다. 본각사는 1955년쯤 지금의 화장실 자리에 조그만 암자가 있었다. 여기에 스님이 부인과 아들 3형제와 함께 살았다. 스님의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과 살다가 스님이 죽자 큰아들과 둘째 부인이 재산을 나눠서 큰아들은 떠나고 둘째 부인이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옛날 물이 넘치던 시절에는 여기를 '뚝뚝동'이라 불렀다. 그런데 안양천에 원래는 독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독을 만들었다.

1961년쯤 동대문 밖 수유리에 큰 화재가 나서 거기 살던 이재민들을 이곳으로 옮겨 와 45인용 군용 텐트에 8가구씩 입주시켰는데,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 목동 입구 독에서 오목교 지나 신정교 지하까지 많은 판자촌이 형성되어 80년대 신시가지 조성 전까지 계속 있었다.



1970년대 엄창역 앞 상가의 모습

한번 정착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 곳



황영주

(평해 황씨(울진), 1965년부터 사심)
인터뷰 일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내가 군복무를 끝낸 때인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4월 1일자로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예비군 2천 5백여 명 정도가 중앙교회 옆 공터에서 모여 예비군 훈련을 했다.

1972년에는 태풍으로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렸는데 오목교 배수펌프장이 고장나 목동 별판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다. 마을의 집들이 물에 잠겼는데, 수도 시설도 없어서 식수 해결을 위해 모래·숯·자갈·모래를 쌓아 걸러서 사용했다. 화장실도 재래식이라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전 보름간 목동 마을 사람들의 시련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시 아내가 만삭의 몸이어서, 엄지미에 사는 최영태 위원님 댁에서 아기도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웃 간 인정이 있어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동사무소 앞부터 법무부 단지 사이가 수로였는데, 1970년 이후로 복개 공사를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새 마을 운동 시기에는 새마을위원회, 정화위원회, 부녀회분들이

힘을 합쳐 뒷골목 포장도 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해 마을 주변을 깨끗이 정화했다.

행정 처리는 현재처럼 기계화, 간편화된 것이 아니어서 호적·등·초본을 떼려면 구청까지 가서 업무를 봐야 했고,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1988년 양천구청이 개청될 때부터 민원실에서 서무를 보며 구청, 동사무소 간의 민원 업무 등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다.

오랜 시간 목동에서 살면서 보니, 원주민들과 새로 이주해 오는 분들이 관계가 친밀하고 두터워 한번 정착하면 떠나기 쉽지 않은 곳이 이곳 목동이다. 마을 사람들의 순수하고 친절하 모습은 목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목2동은 공무원들이 부임해와 진급해서 가는 곳이고, 어딜 가든 승승장구하는 곳이다.

지금도 마을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어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이웃의 따뜻한 정은 목동을 마음의 고향으로 만든다.

영진목욕탕이 마을의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강의순

(진주 강씨, 1986년 이사와 2대째 목욕탕 운영)
인터뷰 일시: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진주 강씨로, 안동 김씨인 김희로님과 전주 이씨인 이순재님의 며느리가 되어 1986년부터 목동에 살면서 2대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시부모님은 1970년에 마을에 정착해서 건축업을 했다. 주택 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동네분들이 수맥이 좋으니 목욕탕 하면 괜찮겠다고 해서 1981년 10월 27일에 목욕탕을 개업했다. '영진'이란 상호는 막내 아들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당시 마을 분위기는 기와집도 있고 시골 분위기였다. 목욕탕이 들어서고, 은행이 생기고, 상가가 하나둘 자리 잡으면서 지금의 마을 모습으로 변해왔다.

목욕탕 연료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처음엔 장작을 사용하는 뿔감 연료를 썼고, 다음엔 석탄, 벙커씨유, 톱밥, 기름을 차례로 썼고, 지금은 도시가스를 이용한다. 목욕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삼대가 이용하는 단골도 있고, 한번 오셨다가 물이 좋고 편해서 계속 오는 분들도 있고, 다들 내 집처럼 이웃처럼 스럽없이 이용하며, 주인이 없으면 알아서 계산하고 가신다.

우리 말고도 불한증막, 염창탕, 월드파크 등이 같이 생겼었는데 하나 둘 사라지고 상호도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영진 목욕탕은 이름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부도 원래 모습 그대로여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2대째 목욕탕을 지키면서 통장 일도 겸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의용소방대 활동도 하면서 이웃의 안전과 건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IMF 때는 목욕탕에 와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 '이웃이 행복하고 잘 돼야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목욕탕을 찾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상호도 '늘 편안한 집'으로 바꿀까 생각중이다. 목욕탕 뒷마당에 넓은 정원도 있고 커다란 가마솥도 있어 기회가 되면 주변 분들에게 국수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2015년 8월에는 목욕탕에서 전시회를 열어 마을의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젊은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나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이다.

세찬계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신영자

(평산 신씨, 1944년 출생, 외할아버지 때부터 사심)
인터뷰 일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법무부 단지는 양천 허씨네 종중산인데, 이옥련이란 분이 시제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시제를 지냈다. 묘소 주변에 해태상과 미륵상이 있어서 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양천 허씨 시제 날은 마을의 잔칫날이었다. 푸짐하게 음식을 해서 시제 지내고 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마을 한량들은 허씨 종중산에서 활쏘기 대회도 열고 기생을 불러다가 무도 즐기며 놀았고, 아낙네들은 허씨 묘 앞 나무에 그네를 걸어서 그네 대회도 열었다. 우성 아파트 뒤쪽, 엄지미 마을 쪽으로 공동묘지가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물이 피부병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목욕탕도 만들어졌고,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물을 떠 가기도 했다. 그러다 신익희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묘들을 이전했다. 봉바위는 자식 없는 사람이 불공을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정말 효험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새말 목양교회 옆에는 반공구대라는 큰 굴이 있었는데 개발되면서 없어졌다.

새말에서 1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며 산제를 지냈다. 허씨네 산 아래 벚집으로 이영을 엮어서 만든 짚 주저리 안에 향아리를 넣고 그 안에 쌀을 넣고 과일도 넣고 잘 갈무리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새것으로 교체했다. 어느 해에 목욕재계하고 제사 준비를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렸다. 혹시 부정 탄 게 아닌가 걱정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7, 8월쯤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나서 아이들은 죽고 며느리도 큰 화상을 입었다. 그 이후 산제터가 없어졌다. 지금의 정목초등학교 자리가 옛날엔 다야산이었다. 진달래가 만발하고 벚꽃이 그득해 벚꽃 따라 다녔는데, 6.25가 나면서 법무부 단지에서 내려오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아군과 적군이 총질을 해대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금의 e편한 세상 자리에 윗말, 아랫말이 다 이용하는 대동우물이 있었다. 노깡(토관) 10개 묻어서 마을 물로 이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청소하는 날도 있었다. 청소하러 나가면 밀가루나 양쌀을 주어서 받아다 양식으로 이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 대청소하는 날이어서 마을 어른들이 다 청소하러 나가고 동네에 아이들만 남아서 놀 때였다. 한 아이가 집 뒤에서 모르고 수류탄을 집어왔는데, 그게 터지는 바람에 같이 놀던 아이들 8명이 죽고, 그 와중에 한 아이는 창자가 튀어나온 채 울면서 집으로 가는데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아이도 결국 죽었다.

선달 그믐날 소를 잡아서 계원들과 나눠 갖는 세찬계가 있었다. 명절 때 세찬계를 해서 고기를 받으면 향아리에 담아놓고 사용했다. 부녀자들은 쌀을 한 뒷박씩 건어서 그걸 모아 널을 사서 널뛰기를 했다. 널의 길이는 2미터가 넘었는데 가운데다 흙담은 쌀가마니를 받쳐놓고 양쪽에서 줄을 잡고 뛰어 올랐다. 목동 감리교회 선생님이 24분이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다. 박순신 전도사는 피난 가지 않고 남아 계셨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박순신 전도사님 방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 있었다. 박순신 전도사님이 만들어주신 모본단 방식이 있었는데, 피난가다 수원쯤에서 잃어버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말은 100호가 넘는 큰 마을로 정미소가 있었다. 영등포나 다른 마을 사람도 그 정미소를 이용했다. 새말에 마당에 널을 놓고 뛰던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만들었다. 그게 새말 경로당이다.



헤드스타트 이념 도입해 개원한 다솜어린이집



한경애
(다솜어린이집 원장, 32년간 운영)
인터뷰 일시: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1983년 3월 7일 '목2동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원하여 35년간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1981년 대통령 내외분 미국 순방 후 미국의 헤드 스타트 이념을 도입하여, 취학 전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과 아동의 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이후, 1991년에 '다솜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맞벌이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는 동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원 당시엔 안양천 뚝방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아파트 50%, 일반주택 50%의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개원 초기엔 100평의 부지에 철판 조립식으로 건축된 교사에 84명의 아동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유아 교육을 받았다. 당시엔 어린이집 주변으로 논과 밭, 소·돼지를 키우는 농장도 있는 농촌의 모습이었고, 길도 비포장이라 비만 오면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질퍽한 곳이었다. 1984년엔 대홍수가 나면서 안양천이 범람하고 어린이집 앞까지 물이 차올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유실되기도 했다. 그 뒤 1992년에 도로가 재정비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3년엔 서울시 예산 3억 4천만 원으로 2층 교사를 증축하려 했으나 지반 안전 문제로 반려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어린이집이라 한 집안에서 3대째 등원하고 있는 집도 있고, 장년이 된 부모 세대는 마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

월요일 아침이면 어린이들이 마당에 반별로 모여 애국초회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원장님 말씀, 슬선수범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어린이에게 수여하는 선행상 시상, "밝고 건강한 어린이, 스스로 하는 어린이, 슬기롭고 사랑하는 어린이"라는 다솜 약속 3가지 북창과 원가 제창, 그리고 국민체조의 순서로 초회를 하며 일주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원생들이 항상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한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장애통합반을 운영하여 장애 아동들도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어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아동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잘 지낸다. 유아교육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설'하는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유아들이 친구와 협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기본 심성은 순수하고 정이 많다. 어린이집 초기 아동들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와 고도 산업화의 영향인지 요즘은 아이들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다솜어린이집 전경



유아들의 활동 모습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성문교회



한용권

(성문교회 행정목사)

인터뷰 일시: 2015년 10월 07일 수요일

1980년 5월 학교법인 보성학교(이사장 한경직 목사)가 소유하고 있던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1983년 신촌 창천동에서 목동으로 이전해 왔다. 서울의 관문인 이곳 목동에 미래를 위한 국제도시의 역할과 조용한 교회, 평안한 교회, 누구나 쉽게 얻어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성문교회'로 교회명을 정해 정착했다.

정착 초기엔 도로 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야산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목동 마을 안에 자리 잡은 교회는 지역 주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 지역사회 전도를 하고, 교회의 자원을 이용해 문화교실, 장학사업,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한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20kg 100포 분량의 쌀을 지원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있으며, 매월 목동 관내의 어려운 가정 20~30가구에 지원을 하고, 동사무소와 연계한 지원도 한다.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2명에게 연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6년에 설립된 비전 센터에서 문화교실, 커피 바리스타 양

성, 국민건강협회의와 함께 하는 탁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단체 '1% 기적'은 매달 재능 기부를 하며 정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비전 센터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마을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하고 있다.

성문교회는 미래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 아래 2000년대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 레인보우를 설립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2002년에는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 10주 동안 교회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알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기기 위해 비전 센터를 건립했다.

성문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초기지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한국과 세계를 이끌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지역 주민의 행복 증진과 설 공간을 개방하여 마을과 함께 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땅



최영우

(해주 최씨 1937년)

인터뷰 일시: 2015년 12월 2일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이상 이곳에 거주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아버님은 자식들 굶기지 않을까, 공부는 제대로 시킬까 노심초사하시며 새벽 4시면 일어나 농토에 나가 농사짓고 농토를 늘이면서 부지런히 사셨다. 그런 아버님의 뜻을 이어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리를 지키며 지금까지 마을의 어른으로 살아왔다.

옛날에는 달거리에 30가구 정도 있고, 새말에는 정미소가 있고, 굽은 도로에 띄엄띄엄 집들이 있었다. 새말·나말이란 지명은 조선 시대에 파발을 하기 위한 말 교육장이 있어서 나온 이름이다. 5개 부락 중 모세미 분들과는 왕래가 별로 없어서 친분이 없었다.

6·25 때 낮에는 김포공항 비행장에 미군이 있고 밤에는 셋강과 영등포 쪽에 인민군이 들어와 대치 상태로 있어서 다리를 끊기 위해 비행기 폭격이 있었다. 이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웠다.

군인과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방법초소가 있었다.

목동과 염창동 합해서 지구대 파출소가 하나 있었다. 방범대 활동 때 야간 순찰도 함께 하고 지구대원들에게 밤참도 제공하며 마을 일에 적극 참여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작고하신 분도 있어 두 분만 남아 있는 달거리 친목회와 청친회 활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금고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마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마을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 헤쳐 나가고 인정이 많아서인지 선·후배들과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마을의 어른으로 주변분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

제2국민병으로 부산까지 갔다 오기도



이윤구

(11대째목동에사심)

인터뷰 일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전주 이씨로, 성종대왕의 왕자 이성군의 15대손으로, 1624년 이치(李穡) 이후 11대째 목동에 정착,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안달거리에 전주 이씨와 덕수 이씨가 주로 살았는데, 이후 최 씨, 윤씨도 함께 살았다.

달거리에 덕수 이씨 돌비석이 있고, 종친회에서 제사도 지냈는데 서울시 구획 정리로 산소가 이장되었다. 그때는 마을에 40호 정도가 정착해 살고 있어서 집안 대소사를 다 알 정도였다. 어릴 때는 별말(당산동) 학교에 다니다 양천국민학교로 전학해 10리 길을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다녔다. 4학년 때 광복이 되어 5, 6학년은 정식으로 담임을 배정 받아 교육을 받았다.

중학교는 서울역 옆에 있던 '조선무선 중학교'에 다녔다. 건물 이 4층인가 5층인가 되었다. 신길동 가면 서울역 가는 전철이 있었다. 그래서 두 시간마다 오는 버스 타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리목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김포에서 오는 양조장 트럭 짐 칸에 올라타 신길동까지 가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태워 주려고 트럭 운전자분이 일부러 서서히 운행하신 게 아닌가 싶어 그 배려가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다 중학교가 의정부로 이전하고 6·25전쟁이 발발해 학교를 중단했다.

6·25 때 제1차 인민군이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선전부대가 “북한은 파리 하나 없고 아주 잘사는 깨끗한 나라니, 지금 군대에 들어가서 통일이 되면 제일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선전해서 젊은 사람들을 지원병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인민군의 후퇴로 국군이 들어와 김포군에서 17~50세의 사람들 4,500~5,000명을 제2국민병으로 뽑았는데 나도 거기 뽑혀서 문경을 거쳐 부산까지 갔다. 가는 데 21일이 걸렸다.

부산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나이가 어려서 1년 반 동안 대기 상태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오는 길에 대구 경산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동창인 서정득, 이응복과 함께 팔공산에서 남의집살이를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

그때 보니 마을에 인민군이 있고 미군은 등촌동 통합병원 못미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양화교 다리를 건너가

는 미군 보급차를 습격해서 레이선 박스를 용왕산으로 다 옮겨 놓았다. 그런데 미군의 수륙양용 탱크가 한강을 건너 곡사포로 용왕산을 공격해 인민군을 전멸시켰다. 용왕산에 있던 레이선 박스 안의 물건들은 마을 아이들 차지가 되었다. 그 후 서울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를 통해 지금의 마을 모습이 되었다. 1983년 아이템베이 건물과 성문교회까지 리잡으면서 인구가 증가했다.

마을에 큰 건물이 서고 편의시설이 자리 잡으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익과 열정, 기다림으로 마을 위해 일해



이훈구

(1949년 출생, 전주 이씨, 성종대왕의 왕자 이성군의 15대손으로, 1624년 이차(李穡) 이후 11대째 목동에 정착하여 거주)

인터뷰 일시: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만 17살에 해군에 입대해 소년병이란 말을 들으며 복무했다. 군 제대 후 1978년에 동네 청년 72명이 모여 청친협의회를 구성했다. 제일 막내인 내가 총무를 맡아 첫 사업으로 달거리 노인정을 건립했다. 최영철(최태식의 부)님이 땅을 기부하고 청친협의회 청년들이 설비, 칠, 배관, 도배 등을 모두 직접 해서 슬라브 건물을 완공했다. 달거리 노인정 건립을 시작으로 청친협의회에서 20여년 동안 노인잔치, 척사대회 등을 열었고, 용왕산 산자락에 산사태가 나면 동과 협조해서 함께 복구하고, 어려운 분 도와주는 등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기부도 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1991년에 주변의 권유와 지원으로 구의원에 입후보해 당선되었다. 그 후 11년 동안 구의원을 3번 했고, 2000년부터 4년 동안은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17년 동안 제도권에서 양천구와 마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최초로 은평구와 양천구 목동 두 곳에서 범적으로 문화의 집을 건립할 수 있게 해, 마을 어른이신 이종

선님이 기증하신 땅에 지금 있는 문화의 집을 건립했다. 문화의 집은 나중에 동사무소로 바뀌었다.

1999년 의회 생활하면서는 성문교회와 신목동역 사이의 도로를 2미터씩 확장하는 도시계획사업을 했고, 비가 시간당 60~70mm만 내려도 지역이 모두 침수되곤 하던 것을 공항로에서 염창동으로 가는 길의 하수관 공사를 통해 해결 하였고, 비만 오면 안양천에서 넘어온 물이 본각사 앞과 나이가가라 호텔까지 차올라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곤 하던 열악한 환경을 옹벽 공사를 통해 개선했다.

또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용왕산 트랙을 초기에는 톱밥으로, 나중에는 라커 포장, 그리고 현재의 우레탄 포장으로 바꾸었다. 용왕산 트랙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 사례로 꼽힌다.

목동사회복지관은 양정모 회장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목동 지역에 최초로 건설한 복지관이다.

목동 체육센터는 서울시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재직시 까다로운 서울지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게 계획서와 목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통과가 되어 건립하게 되었다.

88체육관에서 월터급 세계 타이틀 매치 정영길 선수 생중계를 유치하였고, 목동 체육관 권투후원회장을 10년간 하면 서동양 챔피언 2명, 한국 챔피언 3명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6·25 직후 모두가 어렵고 힘들던 시기, 변변한 운송 수단도 없어서 어디든 걸어 다니곤 했는데, 누님 한 분이 양천국민 학교를 다니면서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힘들게 다니느라 발뒤꿈치에 종기가 났다. 그 종기가 덧나고 치료시기를 놓쳐 다리가 썩어 들어갔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누님이 “내 다리, 내 다리!” 하며 울부짖던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선하게 남아 있다.

삶은 팍팍하고 힘들었지만 자연 환경은 맑고 깨끗해서, 안양천에서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책보를 둘러메고 학교 가는 길에 신발주머니에 조개를 가득 잡아 영등포에서는 친구들과 물물교환을 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면 용왕산 정상에 올라 노랑진에서 펼쳐지는 에어쇼며 국군의 날 행사를 바로 눈앞에 보듯이 감상했다.

달이 뜨면 용왕산 아래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마을이라 해서 달거리 마을이라고 했다. 외갓집에 놀러 가면 달거리 도련 남 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 마을은 긍지와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그 용왕산도 1980년대에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7부 정도 깎아서 배수지를 만들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아 왔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 간에 정이 많았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았고, 돈독한 정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왔다.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성까지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좁은 공간 이라도 같이 어울리고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다.

목동에 11대째 살면서 누구보다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주민의 불편을 먼저 나서서 해소해 주려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전쟁에도 멀쩡했던 우리 마을



이길훈

(전주 이씨, 성종대왕의 왕자 이성군 14대손 이치(李稹, 1624년)우리마을에 정착후 그자손인 이길훈 현재까지 거주)

인터뷰 일시 :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셨는데,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아버지노역하시는 곳에 면회를 갔다 오셨다. 그리고 그날 나를 낳으셨다.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 손을 잡고 반월까지 피난을 갔다. 가는 길에 폭격으로 많은 집들이 불타는 광경을 보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사람이 희생된 모습을 보았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우리 마을은 부서진 집이 한 채도 없고,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도 하나 없었다.

우리 마을 어린이들은 공항로변 논에서 겨울철에는 썰매를 타고, 여름에는 셋강(지금의 안양천)과 한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엄지미 마을 앞(현재 신시가지아파트) 논에서 농사짓는 아버지를 돕기도 하면서 지냈다.

농사지는 벼를 마차에 싣고 새말 동네를 돌아서 마을로 왔고, 그 벼를 수동 탈곡기로 탈곡해서 다시 새말 동네 방앗간으로 가져가 정미해서 건넛방에 쌓아두고 밥을 해 먹었다. 밭에는 감자, 오이, 파, 깨, 배추, 무, 옥수수 등을 심어 자급자족하는 농촌 마을이었다.

1950년도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 등잔불을 켜 놓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고, 학생들은 공부를 했고, 낮이면 자치기나 기마전 등을 하며 놀기도 했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서울 당산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때는 공항에서 오는 버스와 강화에서 염창길로 오는 버스가 다리목(지금의 양화교)에서 정차를 했다. 김포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영등포, 용산 등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전기불이 없어 불편함을 느꼈는지 시골 촌놈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그래도 설날이나 추석 때면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는 색동저고리 새 옷을 입는다는 기다림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김포공항로 2차선 도로는 여러 번 확장하여 현재의 도로가 되었다.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배울 때였는데, 한 두굴 고개에서 내려오다 맞은편 앞에 자동차가 정차해 있어 급정거를 해야 하는데 당황해서 도로를 횡단해 버렸다. 그때 뒤에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나 놀라서 뚝방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다.

1970년도부터 우리 마을에 건축 바람이 일고 법무단지가 형성되고 개발이 시작되었다.

1978년 우리 마을에 '목동 청친협의회'(1분과, 2분과 45명)가 창립되었다. 1980년대에는 강서구청장, 강서경찰서장이 명예회원 자격으로 연말 모임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목동 청친협의회'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우리 마을은 앞에는 안양천과 한강이 보이고 용왕산이 있어 언제든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고, 지하철 9호선 역세권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 편리한 살기 좋은 마을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맨 오른쪽이 이길훈

건축일 하며 마을 위해 활동해



김영진

(광산 김씨 문정공파 37대손, 1945년생)
인터뷰 일시: 2016년1월22일

1975년 5월 구획정리하기 전 24-5호(현505번지)에 거주했다. 1975년 목2동 땅은 평당 3만 원~3만 5천 원 하였고, 1977년 평당 7~8만 원 할 때 목동 42번지 땅을 호남 사람들이 함께 사서 20여 가구의 주택을 지었다. 20여 가구가 함께 모여 생활해서 해남촌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동사무소는 초대 이동갑 동장님이 이종선님이 기증한 땅에 보통 양옥 건물을 지어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구청의 지원과 해남촌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물을 완공했다.

약수터 주변 128번지와 131번지 쪽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입었다.

1979년 감나무와 포도밭이던 땅에 양화초등학교를 설립했고, 신학대학교 부지였던 아산에 양동중학교와 교회가 건축되었다.

금호아파트는 황토 땅이었고 롯데 캐슬도 건물이 서기 전엔 소나무 밭이었다.

자식들이 양화초등학교와 양동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 육성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초기의 양화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엄지미와 뚝방촌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참 어려운 시기라 학용품도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마을의 건축 일을 해서 많은 건물을 지었다. 그때 지은 건축물은 거의 다 헐리고 지금 살고 있는 송암 빌라와 골목시장 안상가 건물 한 채만 남아 있다.

2010년부터 땅 면적은 그대로인데 건물의 과밀화로 골목길 차량 통행과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1978년 고 이병양님이 용왕산에서 배드민턴 라켓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공을 치는 모습을 보고 양화초등학교 앞서점에서 '배드민턴 코트 길라잡이' 책을 사서 규격에 맞는 코트를 만들어 목동 최초로 배드민턴 클럽인 '월봉클럽'과 '목동클럽'이 만들어졌다. 월봉클럽 회원은 40~50명 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 2등을 하기도 했다.

1980년 신시가지 만들 때 배수지 조성으로 산이 깎이는 바람에 배드민턴장도 산 중간쯤 내려와 다시 만들어졌다. 이때 월봉이란 이름도 용왕클럽으로 변경되었다.

용왕클럽의 총무로 활동하며 배드민턴의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양동중학교 배드민턴부가 생기며 코트를 만들었는데, 천막 안에 라인도 없이 빨랫줄을 네트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창 건축 일을 하던 때라 15톤 덤프트럭 7대분의 마사토로 땅을 고르게 하고 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만들어 주었다.

학교 배드민턴부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걸 안 14대 박범진 국회의원이 교육분과위원회를 통해 체육관 예산을 따다 '온누리' 체육관을 건립했다.

박상덕 체육 교사와 이성국 코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꾸준한 연습으로 이현일 같은 국가대표 선수도 키워냈다.

양동 일반인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동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다. 오전반 50명, 오후반 10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한번 하고, 오전반 회원 중 11명은 조찬 팀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갖고 있다.

회원들 회비는 3만원씩 각출해 학교에 사용료 명목으로 지원금 970만원을 내 왔다.

2016년부터 1266만원을 내라고 공지해서 구청 생활체육과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놓은 상태다.

목2동 마을에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마을과 이웃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8년 통금이 있던 시절 방범위원 활동을 하면서 경찰관들과 관내 순찰도 돌고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 협조 등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급격한 마을의 변화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마을을 위한 활동에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토박이는 아니지만 애착 가는 마을



이종덕

(전주 이씨)

인터뷰 일시: 2016년 1월 15일

1980년에 목2동 521-4번지, 지금의 성문교회 자리에 이사 왔다.

용왕산 아래 '칠성사'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초파일이면 장사진을 이뤘다. 절 앞을 중심으로 구멍가게가 생기고,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았다. 나이가 가라 호텔 쪽에 양동파출소가 있고 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많은 때여서 노점상들은 단속을 피해 수시로 옮겨 다녔다.

1983년 성문교회가 자리 잡고 확장해 가면서 칠성사도 개화산 뒤쪽으로 이사했다. 지금의 비전 교육관은 '경운기 집'으로 불렸다. 농사를 많이 지어서 큰 마당 가운데 경운기가 자리 잡아 불리게 된 이름이다.

1988년부터 마을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아져, 지역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의 부탁으로 지역 총책을 맡아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다.

통일산악회와는 별도로 목2동 산악회를 조직해 총괄산악대장을 맡아 버스 14~15대를 대절해 주민들과 수안보 온천도 가

고, 양천구 전체 단합대회 때는 송추유원지로 버스 50대가 가기도 했다. 이렇게 큰 행사마다 전체 사회도 보고 지역의 리더로서 활동했다.

2000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로 추대되어 현재까지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초창기부터 활동했고, 이강협 위원장 임기인 4기 때만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그때는 선거 운동하는 운동원이라 공적인 자리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빠진 것이다.

호남향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형님이 제주도에 사는 관계로 제주도 조천읍과 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1904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BBS(Big Brothers and Sisters)운동이 있다. 불우 청소년과 결연을 맺어 자립의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구두 닦는 부스를 만들어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 운동을 1999년 목3동 이규석 전 구의원이 양천구 협의회 회장을 맡고, 목2동도 동사무소에서 출범식을 하고 30명 회원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회장을 맡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도 하고, 불우 이웃 돕기, 구청의 따듯

한 겨울나기 기금도 보낸다. 기금은 회원들의 회비와 해마다 광천에서 가져온 김 판매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 마련한다. 목2동 회원 분들과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며 학생 6~7명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전달한다. 그때마다 저녁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학생들이 구김살 없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잘 성장해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오면 마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내 삶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마을 토박이 분들처럼 오랜 세월 산 것은 아니지만 타지 같지 않고 마을에 정감 어린 애착이 간다.

사통팔달 교통의 편의성과 9호선 전철 연장역 덕분에 마을에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 범람하는 것은 안타깝다.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공원과 공터도 활성화되고 용왕산도 잘 활용해 마을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서 편히 쉴 수 있고 배우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길 바란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위한 놀이터도 만들고 종합적인 설계를 해서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달거리 경로당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추억



달거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인터뷰 일시: 2016년 1월 14일

1970년대엔 마을 어르신들이 여름이면 소나무밭 한가운데 감나무 넓은 그늘 평상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더위를 식히곤 하셨지만, 겨울이면 모일 장소가 없어 힘들어 하셨다. 그걸 본 마을의 유지 최영철님이 짚간 화장실로 사용하던 땅을 경로당 짓는 데 기꺼이 투척하고, 경로당 건축에 필요한 경비도 백만 원 기부했다. 마을 분들도 오천 원, 만 원, 많게는 오만 원도 내는 등 십시일반 건축비를 마련하고, 청진회 회원인 젊은 청년들이 직접 건물을 완성해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최영철님이 작고하신 뒤 부인께서 건물을 정리하고 개조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달거리 경로당 회원은 김정자 회장을 중심으로 25분이 계신다.

다른 경로당과 달리 점심때까지는 집에서 가족과 계시다 오후 2시 이후에 모여담소를 나누시고 저녁을 드신 후 6~7시 면 헤어진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이치침도 놓고, 앉아서 몸 풀기 운동도 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을 해 준다.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는 운동하러 밖에 나간다.

방한 칸에 바깥에 딸린 작은 주방이 전부라 회원 25명 이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어서 양천구청에 건의해도 소용없다. 1층 주차장은 세금 내고 건물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운하다.

이렇게 운영되는 곳은 여기 달거리 경로당뿐이다.

주변의 다른 어른들도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 기존 회원 외에 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용왕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꿈을 꾸고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보물을 찾기 전에 꿈 이야기를 하면 효험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꿈이 하도 신기해서 꿈 이야기를 하고 보물이 있다는 장소에 가서 땅을 파 보니 보물은 없고 물만 그득하게 고여 있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그런지 아님 신령스런 기운이 서려 있어서인지 수색에서 여기 용왕산 쪽을 보면 고고한 학의 자태가 보여 용왕산에 와 보면 학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일까지 있다.

마을의 한 분은 봄에 논두렁을 정리하며 논일을 하던 중 산 밑으로 빠져나와 있는 산삼을 캐서 논바닥 물에 씻어서 드시고 90을 넘게 장수하셨다.

겨울이면 얼음판에 가서 얼음 지치다 젖어서 오기도 하고, 감나무에 감이 익어 갈 무렵 감을 따서 몰래 숨겨 놓고 익으면 하나씩 꺼내 먹고, 쑥대밭 너머 목화밭에서 목화꽃 따 먹으면 달고 맛있었다.

초여름에 친구와 감자밭에 들어가 익지도 않은 감자 줄기를 몇 구덩이 뽑아 놔다가 마을 어른께 들켜 감나무에 새끼줄로 꿰뚫어 묶어 있기도 했다.

밭에 열린 가지도 따서 아삭 베어 먹으면 달고 맛있어서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가지 나무에 열린 가지다 세어 놔으니 따면 혼난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가지의 끝만 한입씩 베어 물어 놓은 걸 본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셨다. 알고 보니 장난꾸러기 어린 남동생이 따면 안 된다고 하고 먹고는 싶고 하니 한입씩만 베어 먹은 것이었다.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하지 않고 귀하던 시절이라 산과 들에 나는 모든 것이 귀하고 맛있었다.

뱀도 많아서 감나무에 뱀이 걸쳐 있기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썩히고 발등을 거쳐서 지나가기도 했다.

풍족하진 않지만 이웃과 함께 오순도순 정감 있게 살았다. 한 마을에 오래 산다는 것은 같이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한 가족같이 챙길 수 있어서 좋다.

통장 일 하며 마을 사정 속속들이 알게 돼



정정기

(하동 정씨, 1994년부터 거주)
인터뷰 일시: 2016년 1월 15일

23동 통장과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03년 통장을 하던 분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서 아내에게 통장직을 맡을 것을 권유했는데, 함께 서류 구비하러 간 동사무소에서 직접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의향을 물어와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다. 2008년 회장 대행으로 있다가 2009년 1월부터 정식으로 회장직을 맡았다. 가구 수의 증가로 32동에서 33동으로 늘었다. 마을 행사인 운동회, 경로잔치, 여름나기 삼계탕 대접 등 행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도 하고, 당일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일한다. 정기적인 행사 외에 용왕산 벽화 그리기, 새집 달아주기 등 많은 일을 솔선수범한다. 매달 10일, 25일에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 청소 작업도 수시로 진행한다. 통장 자격이 전에는 만 60세까지만었는데, 2015년 상순부터 65세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모두들 깨끗한 마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반 쓰레기는 일몰

후 집 앞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되는데 보통은 출근하면서 밖에 배출해 하루 종일 쓰레기가 나와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

목2동의 집들이 대부분 공동주택 4~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지치고 힘들다. 동사무소의 전달 사항이 있어 주민 댁을 방문하려면 퇴근 후에나 가능해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전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고충이 있다. 게다가 늦은 시간에 찾아보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왜 왔느냐고 따지듯이 물어봐 민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공지사항을 붙일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한다.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도 오랜 시간 통장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얼굴이나 사는 모습만 봐도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 그런 분을 만나면 바로 동사무소 복지팀에 알려 실상을 파악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다음에 만났을 때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환한 웃음을 지어 주실 때, 내가 하는 일에 보

람을 느낀다. 통장협의회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2015년 신설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마을의 사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고 또한 개선점까지 제시할 수 있어 당연한 일이다. 방위협의회에도 참여해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건의사항을 바로바로 시정해 주고 호의적이며 친절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처음 마을에 살 때는 공터도 많고 개인주택과 다세대가 반반 정도였는데, 2016년 현재는 개인주택도 한두 가구만 있고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룬다.

가구 수가 많아져 인구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 취학 통지서가 많을 때는 23명일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보통 10명 내외다.

마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통장으로서 마을의 안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해 마을 골목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위험하니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안전한 마을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마을의 안전과 이웃의 안위를 염려하며 통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봉바우에 얽힌 즐거웠던 추억들



나중복

(나주 나씨 26대손, 목2동 출생)
인터뷰 일시: 2016년 12월 4일

나의 선조는 명례방(지금의 명동)에서 거주하다 지금의 독립문(서울 종로구 연천동)에서 세거하시다가 1400년대쯤 당파 싸움이 한창일 때 지금의 은평구 증산동으로 이주하여 90~100여 년 전에 목동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나는 그 후 이곳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엔 용왕산이 엄청나게 높아 보였는데, 용왕산 자락의 봉바우(바우는 바위의 경기도 방언)는 속이 비어서 두들기면 통통 소리가 울렸다. 그 봉바위가 있는 곳이 경지도 제일 좋았고, 그 주변에서 놀던 추억이 제일 많다. 봉바위가 있던 그 숲속에는 산토끼가 있어서 그것을 잡기 위해 산 위에서 아래로 몰기도 하고, 때때로 가서 보이는 대로 잡기도 했다. 토끼뿐 아니라 평도 많이 살아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목이 울창해서 각종 산나물뿐 아니라 건강 장수식품인 버섯류도 같이 번창해서 봄이면 동네 아낙들이 나물과 먹거리 채집을 위해 산으로 갔다.

목동리 새마을은 웃마을 아랫마을에 80호 정도의 가옥이 있었

는데, 웃마을 용왕산 자락의 성황림에서는 10월경에 산신제가 열렸다. 성황림이라는 숲 안에 성황단(법무단지 뒷산에 있던 작은 서낭당, 당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산신이 살면서 마을과 주민을 수호해 준다고 믿었다. 그러한 민속적 관습에 따라 우리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내 선배 이경천의 할아버님인 제주가 도포를 입고 산제를 지내시면, 나는 동생과 친구들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제사 음식을 기다리곤 했다.

봉바위는 현재 법무단지가 있는 곳으로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젊은 연인들의 연애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요즘같이 놀이시설이 많지 않았던 시절 우리 마을의 놀이터여서 그곳에서 윷마을, 아랫마을로 나누어 친구들과 병정놀이 했다. 그때가 군사문화 시절이라 군인 놀이 외에는 다른 놀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들과 막대기를 총 삼아 총 소리를 내면서 놀곤 했다.

양동면에는 신정국민학교가 있었고, 봉바위 밑으로 수리조합의 물이 흘렀는데 겨울철이면 광광 얼어서 썰매를 타고 놀았던 추억이 생생하며, 여름에는 호리가다라고 수영을 하면서 놀던 기억이 새롭다.

용왕산 자락의 그 숲이 법무단지 주택으로 변하여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봉바위는 아직도 그곳에 건재하고 있는데, 안 전상 바위 입구를 막아 일반인은 출입을 못 하고 있다.

35년간 한자리에서 마을의 변화 목도



이종관

(용인이씨)
인터뷰 일시: 2015년 12월 24일

할아버지 때부터 엄지미에 살았다. 1974년 영등포에 살고 있던 부인과 결혼해 다복하게 살고 있다.

7남매 중 가장 집의 만며느리로 시집와서 조부모와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과 의좋게 살아온 부인이 대견하고 고맙다. 할아버지 87세, 할머니 88세로 장수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장수상을 받기도 했다. 백세 시대라는 지금이야 쉽게 볼 수 있는 연령이지만,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회갑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시기라,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큰 복이고 자랑이라 마을 잔치가 열렸었다.

엄지미에 살던 23집은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며 한 가족처럼 살고 있다.

마을의 다른 분들과 달리 아버님이 직장생활을 하셨다.

지금 하고 있는 쌀집은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다.

골목시장은 가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아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시장이 번창할 땐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

금은 술집과 식당, 커피숍만 생겨서 시장의 고유 기능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쌀집도 예전 같지 않아 오랜 단골들이나 거래를 하고, 대보름이나 동지 등 절기상 특별한 날 외에는 큰 매출이 없다. 오랜 시간 해온 일이고 마을의 변화 과정을 한 곳에서 쪽보아온 사명감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던 엄지미 친구들과 청친회, 엄친회 모임을 통해 우의를 다져가고 있다.

봉사로 지역 일을 시작해



이영옥

(전주 이씨, 허령대군파, 1991년부터 거주)
인터뷰 일시: 2016년 1월 21일

1998년 교육 강사로 봉사를 시작했다. 신목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종이접기 교육과 치매 어르신 목욕 봉사, 설거지 봉사로 감사장을 받았다. 양천노인복지관 설거지 봉사로 꾸준히 하고 있다.

목2동 캠프 상담가 활동을 한다. 캠프 상담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양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수요처와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과 성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 많은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돕는 일을 한다.

해마다 진행되는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손수 만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며 어른 공경의 모범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

양화초등학교와 양동중학교 학생들에게 1365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도 한다.

청소년 기본 교육을 하고,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캠페인,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 달에 한번 방문해 간식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는 일손 맺기 활동도 한다. 직접 찾아보는 것뿐 아니라 안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챙겨드리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주먹밥을 만들어 드리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을의 어른들과 학생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마을의 이러한 봉사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살기 좋고 인정이 넘치는 마을로 거듭나길 바란다.

2007년부터는 사탕부케를 만들어 마을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 때 축하 선물로 전해 주기도 했다.

마을 안 활동뿐 아니라 코레일의 후원으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와 목2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기차 타고 여행하는 체험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장거리 체험활동 때 출발에서 도착까지 안전을 위해 애써준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양천구 18개 동 전체에 있는 단체로, 청소년 선도와 안전귀가 캠페인을 통해 PC방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담배 판매 상점을 일일이 방문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를 홍보하며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금연 캠페인 활동을 한다. 1년에 한번, 목동 오거리에서 양

천구 전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상황과 지향점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이사장도 맡아 하고 있다.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활용품 가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여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기총회를 통해 발기인 지명으로 이사진도 뽑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다. 목2동 전체의 도움으로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등을 기부 받아 수리하고 세탁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수익금은 경로당에 쌀을 전달해 드리고 양천구 겨울나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마을의 요긴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활동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듯 마을 안의 크고 작은 활동들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온 봉사의 역량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봉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흐뭇하고 기쁘다. 앞으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

앞서 경험하고 행동해 온 봉사의 선배이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등대가 되고 싶다.

나누고 채우며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



한규대
(청주 한씨, 목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인터뷰 일시 2016년 3월 24일

1979년부터 목동에 살았다. 공직 생활을 하신 아버님은 세상 은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며,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가르침 아래 사회정화위원회, 청소년지도육성회, 검찰청 선도위원회 등 왕성한 단체 활동을 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살았다.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자기희생이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2012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어 4년 임기를 거쳐 2015년 12월 30일 재당선되어 업무를 수행중이다.

목동새마을금고는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 전통의 계, 두레, 품앗이에서 발전해 현재에 이르는 목동의 자랑스러운 금고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태동된 자발적인 금융기관으로, 주민들이 살면서 학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끼리 모은 자금을 융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출자금을 통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내

안방 금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주인인 금고이다.

예금과 대출 업무, 공제 사업과 보험 사업, 일반 여수신 사업 등 모든 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산이 1000억대, 자기 자본이 220억인 마을의 부자 금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말까지는 2·3·4동 금고가 각각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8년 하나의 금고로 합병되어, 목2동 새마을금고가 본점이 되어 목동새마을금고로, 3·4동은 지점으로 승인되었다.

목동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익의 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해마다 장학 사업을 통해 양동중학교 학생 13명에게 각 40만 원씩, 양화초등학교 학생 14명과 정목초등학교 학생 15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합 139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학생 장학금뿐 아니라 2·3·4동 동별로 경로잔치에 50만 원, 장수문학대학에 80만 원, 따뜻한 겨울나기에 100만 원, 어버이날 경로당에 떡과 과일 전달 등 주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각 단체별 후원을 원하시면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이렇듯 목동새마을금고 운영은 수익도 내고 회원들의 이익도 챙겨주며 알뜰살뜰하게 살림하고 있다.

“금고 역사 40년 전통의 목동새마을금고는 언제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의식 속에서 실천하며 봉사하는

지역 금융의 대표이다.

최우수 1등급 금고!

언제나 정다운 금고!

회원이 주인인 금고!

원칙을 준수하는 목동새마을금고!”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요즘은 주거 형태의 변화로 옛날과 달리 목2동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의 울골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목동은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정이 많은 마을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잘 어울리는 그런 마을이다.

환한 웃음으로 즐겁게 사는 곳



새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인터뷰 일시 2015년 10월 21일

1979년 서울시 강서구 목동 222번지 정운태 씨마당가에 있는 돼지우리 자리를 동네 어르신들과 정운태 씨가 함께 기둥 세우고 지붕 올리고 장판과 도배를 해서 통장 이희조 씨가 쓴 '새말 경로당' 현판을 달고 입주했다. 이후 구청의 지원금을 받아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정식 회원도 결성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현재의 '도시가스 앞'은 '주택 앞'이라고 했는데, 주택이 일률적으로 지어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사람들은 주택 앞으로 나가 양남동까지 걸어 다녔고, 양천초등학교는 체육센터 고개 넘어 등마루교회를 지나서 걸어 다녔는데 여우가 갱갱 거릴 정도여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녔다.

8·15해방 이후 지금의 양동중학교 자리에 나사렛 신학교가 있었다.

을축년 물난리 때는 배를 타고 마을을 다녀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재건국민운동이 차차 발전해서 새마을 운동이 되었다.

새말 경로당에는 1층에 여자 어르신 35명, 2층에 남자 어르신 30명, 총 65분이 생활하고 있다. 남자 어르신들은 댁에

서 점심식사 후에 모여 장기, 바둑, 화투로 여가 생활을 하고, 저녁 6~7시면 귀가하고, 여자 어르신들은 아침 9시경부터 모여 점심식사도 하고, 방문 교사의 지도로 단전호흡도 배우고, 장구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맛있는 점심식사도 함께 하고, 말씀 나누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윷놀이 하고 화투도 치며 환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한다.

새말 경로당의 즐거움의 중심에는 이순선 회장님이 있다. 목동에서 100년 이상 산 전주 이씨 이성병 씨의 며느리로 시집와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56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삶의 무게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넉넉함이 느껴진다.

처음 시집 와서 산 마을에서 안양천 독이 터져 물난리를 겪고, 비만 오면 질퍽이는 마을을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 고초가 있었지만, 이웃과의 돈독한 우의로 고향처럼 살아왔다. 굶은 일에 앞장서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경로당 회장 위치에서도 심분 발휘되어 회원분들을 위해 계절에 맞게 콩버무리와 인절미 등 다양한 떡도 해서 함께 먹고, 깔끔하고 바지런한 성격이라 수건과 행주는 수시로 삶아서 사용하고 있다

회원분들을 위한 이런 노력으로 2014년에는 양천구청으로부터 '모범 어르신 표창장'과 대한노인회 양천구 지회에서 '우수 경로당상'을 받기도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목동 감리교회의 노인교실에도 다니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 점심식사하고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손뜨개나 바느질 등을 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마련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자리가 좁아서 넓은 공간이면 좋겠고, 나아가 운동기구도 갖추어졌으면 싶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와 주면 좋고, 음료나 과일 등도 챙겨주면 더욱 좋겠다.

건강하고 유쾌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감사하고 이웃 사람과 어울려 함께 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Mok 2(i)-dong History

07

목2동의 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

주민센터, 목2치안센터, 목2지구대

교육시설

양화초등학교, 구림 다솜어린이집, 구림 도담 어린이집, 지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시설

달마을 작은도서관, 목동문화체육센터,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달거리 경로당

주민편의시설

목동새마을금고 본점, 영진 목욕탕, 월촌공영주차장, 목2동 전통시장,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신목동역,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기타 시설

양화빛물펌프장, 성문교회, 목동감리교회, 지역내 금융기관, 의약업소



목2동주민센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1

연락처 : 02-2620-4020

목2동 주민센터는 서울 양천구 목2동 주민의 행정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복지와 편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기관으로, 1층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2층에는 달마울 작은도서관과 컴퓨터 교실, 동대본부가 들어서 있으며, 3층에는 자치회관(취미교실, 문화창작실), 4층에는 대강당(문화관람실)이 자리하고 있다.

공공복지팀, 방문복지팀, 행정협력팀의 3팀으로 구성된 동 직원들이 1일 평균 448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2014. 1. 1 ~ 12. 31) 것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공공복지팀

서무, 복지통반장관리,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이웃돕기, 복지코디네이터

방문복지팀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 동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민간자원관리, 긴급복지, 방문간호, 복지코디네이터, 65세.70세도래자방문, 우리 아이복지플래너(만 2세 이하 영유아)

행정협력팀

청소, 환경, 재난안전, 민방위, 자치회관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사업, 주민등록, 통합민원발급, 복지코디네이터

복지 사업으로는 우선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한부모 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장애연금 및 자활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어르신사랑방 결연 사업, 어르신 환경지킴이활동 지원, 홀몸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결식우리아동 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센터내부모습

더욱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되기 위해 65세 연령 도래 어르신을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플래너' 제도와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 방문 '우리 아이 복지 플래너', 찾아가는 방문 복지를 위한 '빈곤위기가정 복지 플래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서울 클린데이', 설날, 추석 대청소 및 어르신 일자리, 자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 청소 사각지대 책임제 실시 등 깨끗한 동네 가구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올바른 재활용쓰레기 배출 홍보 등을 통해 상습 무단투기지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름이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수방 장비를 보유하여 적시에 활용하는 등 수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제설 자재와 인력을 확보하여 취약지점과 급경사로, 대중교통 주동행로 등에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직능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BBS 목2분회, 청소년육성회, 자율방재단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목2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자치회관'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발전·주민 자치·복지, 문화 및 여가·교육·건강 증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천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5월 부터 실시되어 2015년 현재 총 840여 명의 어르신 학사를 배출하였다. 매년 상반기 10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주요 과목으로는 100세 노인을 위한 노인질환 예방, 치매 예방, 어르신 건강백세, 건강밥상, 건강교양강좌, 가요 교실, 웃음 치료, 발 마사지, 실버 레크리에이션, 보이스 피싱 예방법,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강좌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계절에 맞는 야외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자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치회관의 강좌】

강좌수	반수	강좌명
21	28	단전호흡(2), 생활영어(2), 일본어, 컴퓨터(2), 탁구(2), 건강 댄스(3), 산수화, 어르신 노래 교실, 팝송 교실, 경기민요, 주산과 암산, 타로 교실, 부동산 경매 교실, 수납정리반, 바른 자세 척추 교정 등

【초등학교 배정현황】

학교명	주소	통별 배정내역
양화초등학교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57	1~7통, 11~13통, 16~30통, 32,33통
월촌초등학교	양천구 목동중앙로 132	9통
목원초등학교	양천구 목동중앙로 204	8, 31통
정목초등학교	양천구 목동중앙로3길 30-1	10, 14, 15통



야외현장학습



치매예방교육

【직능단체 현황】

[2016. 1. 1현재]

연번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회의시기
1	주민자치위원회	최영철	26	월1회
2	통장협의회	정정기	33	월2회
3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유성고	27	월1회
4	새마을부녀회	강해순	16	월1회
5	방위협의회	김종화	32	월1회
6	바르게살기위원회	김종우	19	월1회
7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이영옥	12	월1회
8	자율방범대	양현경	18	월1회
9	BBS 목2분회	이종덕	16	월1회
10	청소년육성회	최병진	33	월1회
11	자율방재단	김경환	15	월1회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영철	19	년4회

【양천구 역대 구청장 연혁】

역대	성명	재임기간	비고
제1대	전명호	1988. 05.12 ~ 1988. 12.26	
제2대	권이금	1988. 12.27 ~ 1991. 04.11	
제3대	유천수	1991. 05.12 ~ 1991. 08.27	
제4대	탁병오	1991. 08.27 ~ 1993. 01.17	
제5대	허재구	1993. 01.18 ~ 1993. 09.27	
제6대	허 완	1993. 09.28 ~ 1995. 03.19	
제7대	김승구	1995. 03.20 ~ 1995. 06.30	
민선초대	양재호	1995. 07.01 ~ 1998. 06.30	
민선2대	허 완	1998. 07.01 ~ 2002. 06.30	
민선3대	추재엽	2002. 07.01 ~ 2006. 06.30	
민선4대	이훈구	2006. 07.01 ~ 2007. 01	
민선5대	추재엽	2007. 04.26 ~ 2010. 06.30	
민선6대	이제학	2010. 07.01 ~ 2011. 06	
민선7대	추재엽	2011. 10.27 ~ 2013. 04	
민선8대	김수영	2014. 07.01 ~ 현재	

【역대 목2동장 연혁】

직명	성명	재임기간	비고
동장	홍준헌	1988. 07. 01 ~ 1991. 07. 02	
"	신광식	1991. 10. 08 ~ 1993. 06. 30	
"	김만재	1993. 07. 01 ~ 1995. 10. 04	
"	민병달	1995. 10. 05 ~ 1996. 12. 31	
"	황남용	1997. 01. 01 ~ 1998. 09. 27	
"	이종수	1998. 09. 28 ~ 2001. 07. 10	
"	이순구	2001. 07. 11 ~ 2004. 07. 31	
"	안명환	2004. 08. 01 ~ 2006. 08. 03	
"	한달희	2006. 08. 04 ~ 2007. 10. 14	
"	이재근	2007. 10. 15 ~ 2009. 09. 30	
"	이흥옥	2009. 10. 01 ~ 2010. 08. 29	
"	이호열	2010. 08. 30 ~ 2011. 06. 30	
"	김용욱	2011. 07. 01 ~ 2013. 06. 30	
"	이봉선	2013. 07. 01 ~ 2014. 07. 16	
"	김종신	2014. 07. 17 ~ 2016. 01. 06	
"	남대일	2016. 01. 07 ~ 현재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연혁】

직명	성명	재임기간	비고
제1기	이종대	2000. 06. 01 ~ 2002. 05. 30	
제2기	이재우	2002. 07. 01 ~ 2004. 06. 30	
제3기	이재우	2004. 07. 01 ~ 2006. 06. 30	
제4기	이강협	2006. 08. 01 ~ 2008. 07. 31	
제5기	이주영	2008. 08. 01 ~ 2010. 07. 31	
제6기	이주영	2010. 08. 01 ~ 2012. 07. 31	
제7기	유성고	2012. 08. 01 ~ 2014. 07. 31	
제8기	최영철	2014. 08. 01 ~ 2016. 07. 31	

목2지구대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1

연락처 02-2652-0112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찰관서로, 과거 파출소 2~3개를 묶어 통합한 형태이다. 현재 목2동과 목3동, 목4동의 2.12km² 범위, 85,142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40~60명의 직원과 순찰차 2~4대를 구비하여 기동성과 집단 대응성을 갖춘 일선 경찰 조직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2치안센터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7길 25

연락처 02-2646-0112

과거 파출소들을 통합하면서 남는 건물을 개조하여 경찰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치안센터로 만들었다. 24시간 근무 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구대는 사건사고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치안센터는 민원 담당관을 배치하여 경찰 관련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등 치안 서비스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양화초등학교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57
연락처 02-2646-3510 (교장 임세훈)

목2동에 소재한 공립 초등학교로, '정성껏 배우고, 튼튼하게 자라서, 바르게 살자'라는 교훈 아래 지역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목표는 '배움이 있는 교실, 따뜻한 어울림이 있는 학교,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이며, 교목은 은행나무, 교화는 개나리이다.

1978년 8월 3일에 설립 인가된 뒤, 9월 1일 초대 김규희 교장이 취임, 11월 6일 교사 36실 및 창고 1동이 준공되어 1979년 4월 4일에 개교하였으며(32학급 편성), 1980년 2월 14일 제1회 졸업식에서 총 32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7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2008년 서울시 교육청 지정 방과후 영어거점학교로 각각 선정되었고, 2008년 학교경영 우수학교, 2010년 학교교육과정 우수학교, 2011년 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 2013년 안전교육우수학교로 각각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13년 10월 양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립 다솜어린이집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7길 25
연락처 02-2646-8910

용왕산과 안양천이 마주하는 곳에 위치한 다솜어린이집은 1983년 3월 7일 목2동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원하였으며, 1991년 3월 1일 양천구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2015년 2월에 제32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다솜어린이집은 어린이의 인격 존중을 보육이념으로 삼아 따뜻한 보살핌과 돌봄으로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와 어린이집의 연계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 시간연장반 및 장애통합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양천구 모범 최우수시설, 2012년 서울특별시 모범보육시설로 표창을 받는 등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보육정원은 119명이며, 시설 종사자는 20명이다.



구립 도담어린이집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길 104

연락처 02-2651-4415 (원장 김준숙)

달마을근린공원 산자락에 자리 잡은 구립 도담어린이집은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교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기초로 생태유아교육과정을 통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통합반을 운영하여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사회의식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침례회 유지재단이 양천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평가인증 재인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양천구 구립 어린이집이다.

보육정원은 79명이며, 시설 종사자는 11명이다.



【 지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25개소) 】

구분	시설명	주소	정원	비고
유치원	신목유치원	목동중앙북로10길 7-10 (목동)	105	사립
	레인보우유치원	목동중앙북로24길 19-8 (목동)	95	사립
	효성유치원	목동중앙본로86 (목동)	25	사립
	양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목동중앙북로 16길 57	70	공립
어린이집	구립 다솜어린이집	목동중앙로13길 22 (목동)	119	국공립
	구립 도담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8길 104 (목동)	79	
	꽃사슴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2길 13 (목동)	85	민간
	솔비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18길 4 (목동)	35	
	신목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10길 7-7 (목동)	69	
	아름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16가길 10 (목동)	49	
	엄마사랑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18길 11 (목동)	154	
	한사랑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22길 63 건영아파트 상가203,204,205호 (목동)	37	
	개구쟁이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 10 101동 103호(목동, 극동늘푸른아파트)	20	
	금호사임당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8길 111 105동 103호(목동, 목동금호베스트빌)	16	
	늘푸른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 10 101동 102호(목동, 극동늘푸른아파트)	15	
	다운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 20 101동 106호(목동, 목동초원성원아파트)	19	
	도만스쿨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 50-12 101동 101호(목동, 웨스트빌아파트)	19	가정
	미소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14길 38(목동)	14	
	숲속마을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 34 101동 103호(목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9	
	아기동산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26길 39 (목동)	15	법인
	이화사임당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 48 (목동, 웨스트빌아파트 102동 103호)	18	
	이화키즈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2길 45 (목동, 목동근상프리즘아파트 106호)	20	
	참사랑어린이집	목동중앙본로26길 23 온세빌라 101호 (목동)	14	
목동특수방과후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8길 104 (목동)	40		
함초롬어린이집	목동중앙북로 120-7 (목동)	34	직장	

지역아동센터

목2동 내에는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교육, 음악, 미술, 공동체놀이 등의 문화 활동, 다양한 심성 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과 지역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과 지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목2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꿈나무들의 동지	목동중앙북로8길 104	19	2651-2303
나무와숲	목동중앙북로 74	35	2655-1404
샘물	목동중앙북로 91	29	2651-2122

달마을 작은도서관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20 목2동주민센터 2층

연락처 02-2620-3979

지역의 독서 문화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2월에 조성된 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 학생과 일반 주민들을 위한 열람실과 교육실, 자유로운 독서와 힐링 공간인 북카페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즈존은 어린이의 키에 맞춘 서가와 열람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벽면과 천장에는 '하늘을 나는 기차 도서관'을 형상화한 벽화가 조성되어 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존은 창문을 배경으로 테이블과 서가가 배치되어 운치 있는 카페 분위기를 풍겨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난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117㎡ 규모에 8,233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교류의 공간이자 공동체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달마을작은도서관 키즈존



달마을작은도서관 북카페존

목동문화체육센터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73

연락처 02-2062-1862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에 개관된 최신식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로, 35,214㎡의 대지, 지상 3층, 지하2층 규모의 건물에 다양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동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월 평균 4,244명이 수영, 체육, 골프, 헬스, 문화 등 85개 프로그램 162개 반에 등록하여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이다.



독거어르신도사라배달 자원봉사



목동문화체육센터 전경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04

연락처 02-2651-2332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목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목동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도담어린이집 등 7개 사업, 8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개 팀 25명의 직원들이 지역사회 주민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공동체 기반 조성과 행복한 목동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목동새마을금고 본점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14

연락처 02-2644-4592

목동새마을금고는 2008년 1월 1일 서울 양천구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 목2동새마을금고와 목3동새마을금고, 목4동새마을금고가 자율합병을 통해 탄생시킨 양천구를 대표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목2동새마을금고를 본점으로 하여 목3동새마을금고는 목3동지점, 목4동새마을금고는 목4동지점으로 운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은행권보다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사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도 시시때때로 후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각 동주민센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수문화대학 후원, 어르신 경로잔치 후원, 불우이웃돕기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목동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목동새마을금고 본점 내부

영진 목욕탕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14길 6

연락처 02-2648-9922

집마다 욕실이 완비되고 대형 찜질방들이 운영되면서 동네 목욕탕은 급격하게 줄어 이제 동네 목욕탕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한때 네다섯 곳이나 되던 동네 목욕탕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것은 월드컵 목욕탕과 영진 목욕탕 2곳뿐이다. 특히 영진 목욕탕은 목2동 시장 골목 한쪽에 있던 우물터 자리에 1981년 막내아들 이름을 붙여서 문을 연 이래 옛 모습 그대로 35년째 운영하고 있다. 바로 앞의 영진 미용실과 시장 옆 영진 이발소도 목욕탕에 계셨던 분들이 독립하여 차렸다고 한다.

현재 강의순 씨에 의해 2대째 이어지고 있는데, 남탕에 들어서면 한 구석에 예전의 이발소와 구두 닦는 장소가 있는 등 옛 기억을 되살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도심 속 홀로 남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영진목욕탕 내부



영진목욕탕

달거리 경로당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0길 7-5

연락처 02-2648-9726

지역 내 경로당 중의 하나로, 구청에 사립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 이 경로당이 있는 건물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다. 1970년대에 동네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철에 함께 모이실 장소가 없어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 지역 독지가가 자신의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 것으로,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 건립 비용을 모으고, 당시 청춘협의회 젊은 청년들이 벽돌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비비는 등 직접 건물을 지어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이용하다가 1989년부터 구청에 등록하여 사용한 지 23년이 지났다. 현재 할머니들이 2층을 이용하고 계시는 이 경로당은 최근 토지가 매각될 위기에 있어 경로당 어르신들의 근심이 많으시다.



달거리 경로당 전경

【 지역 내 어르신 사랑방(12개소) 】

명칭	소재지	형태	회원수	등록일	연락처
용 왕	목동중앙북로24길 1-31	구립	35	1989.6.1	2646-6315
새 말	목동중앙본로2길 13-11	구립	44	1994.1.6	2646-8311
양 화	목동중앙본로16길 344	구립	33	1989.6.1	2646-9206
월 촌	목동중앙본로28길 37	구립	27	1989.6.1	2649-3002
달거리	목동중앙본로20길 7-5	사립	25	1989.6.1	2648-9726
목동우성	목동중앙로 143	사립	21	1993.10.15	2654-1989
건영(아)	목동중앙본로22길 63	사립	33	1995.9.22	2644-9731
극동늘푸른(아)	목동중앙본로 10	사립	24	1999.6.15	2646-2347
월드메르디앙(아)	목동중앙본로 34	사립	22	2002.3.21	2651-3233
금호베스트빌(아)	목동중앙북로8길 111	사립	29	2002.8.7	2646-4262
목동효성(아)	목동중앙북로24길 65	사립	28	2003.12.26	2653-9719
목동e편세상(아)	목동중앙로7길 32	사립	48	2006.11.27	2653-4359

월촌공영주차장

소재지 목동중앙북로18길

1960년대에 심각했던 주택난을 해소하고 무허가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1969년 시민아파트건립사업이 실시되었다. 목2동에도 3층 아파트 2개 동이 지어졌는데, 목2동 최초의 아파트였던 김포시민아파트로, 당시 주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당시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자, 서울시에서는 1999년 노후 시민아파트를 철거하여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안을 내놓았고, 목2동의 시민아파트도 그에 따라 철거, 2004년 12월 30일 대지 1,090㎡, 연면적 1,915㎡의 월촌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총 주차면수 79면의 주차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월촌공영주차장

1969년 시민아파트 건립사업

1969년 당시 서울 시장 김현옥이 서울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으로 '69 시민아파트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제안, 실시하여 1969년 1년간에 32개 지구에 406동 15,84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으나,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마포구 와우시민아파트 제15동 콘크리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입주자 15가구 70명 중 32명이 사망, 38명이 부상당하는 서울시 행정사상 최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시공업자를 비롯, 아파트 건설에 관련한 공무원이 구속되고 사업은 중단되었다.

목2동 전통시장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20 목2동주민센터 2층

대형마트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맥을 이어 가고 있는 시장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주고 덤의 문화가 남아 있는 시장이다.

전통시장은 기존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령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으로,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된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고,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시장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목2동 전통시장은 인정시장으로서 80여 개 점포가 있다.



목2동 전통시장 입구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신목동역

2009년 7월 24일에 개통한 서울지하철 9호선의 등촌역과 신목동역이 목2동에 위치하고 있다.

염창역은 공향대로상에 위치하는 양천구와 강서구의 경계지점에 있는 역으로, 한쪽은 목2동이며 반대편 쪽은 강서구 염창동 관할구역이다. 역 주변에는 양화 빗물펌프장, 목동도심소공원, 샘물지역아동센터, 양화초등학교, 서울도시가스, 양화교를 지나면 인공폭포가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말에는 이곳에 서해 염전으로부터 수 집해온 소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한강 하류로 진입하는 배가 마포까지 갈 수는 있지만 소금이라 자칫하면 강물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금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소금창고라는 뜻의 염창동이라 하였고, 염창역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염창역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강남까지 빠르게 서울의 도심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출퇴근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신목동역은 염창역과 선유도역 사이에 있는 역으로, 개통 전에는 '용왕산역'이었으나 개통 후 '신목동역'으로 변경되었다. 역 주변에 안양천, 양화교, 용왕산, 식품의약품안전청, 목원초등학교, 이대목동병원, 월촌중학교, 양정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 등이 있다.



목2동 9호선 염창역



목2동 9호선 신목동역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신목동역 3번 출구로부터 10m 지점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으로, 연면적 374㎡,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시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차, 보관할 수 있는데, 총 26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으며, CCTV, 주차관제 카드식 출입시스템 등 최신식 도난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전거수리센터가 설치돼 있어 간단한 안전 점검과 단순 소모성 부품은 무료로 수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전거무료대여소에서는 30대의 자전거(남성용 14대, 여성용 10대, 2인용 1대, 아동용 5대)를 비치·대여하며,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석과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운영된다.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0길 81

연락처 070-7365-8942 (대표자 : 이영옥)

양천구 마을기업 1호로, 주민들이 낡거나 오래된 물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하면 기증받은 물건을 수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재판매한다. 가구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의 기부와 판매를 통해 자원의 순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 수익금은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 자원 재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생활 속 만남의 장으로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동조합 양천행복가게

양화빗물펌프장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4길 2

연락처 02-2649-1814

2012년 6월 7일 양천구 지역의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펌프 시설 3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펌프 4대를 증설하여 286톤/분 규모로 30년 빈도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거듭되고 있는 물폭탄 식 폭우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갖추게 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해 방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성문교회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2동 520번지

1963년 마포구 창천동에서 성민교회와 동산교회가 통합하여 창천교회로 발족한 뒤, 1981년 서울 양천구 목2동 520번지의 현 부지를 매입하여 1984년 2월 교회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김포국제공항의 길목인 김포가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문' 역할을 담당하자는 의미로 '성문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황정식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시무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온나라 선교회를 창립하였다.(초대 회장: 황정식 목사)



성문교회 신축 예배 모습

목동감리교회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51-16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5일, 김의석 장로(당시 전도사)가 목동으로 이주하여 15평의 초가 건물을 수리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교회를 설립한 것이 시초였다. 1927년에 2대 김준관 장로를 시작으로 1948년 2대 박순신 전도사가 교회 내에 성애국민학교를 설립하여 육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9월 20일에는 박순신 전도사가 6.25전쟁 중 피난하지 않고 학교와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유엔군의 인천 상륙 소식을 듣고 태극기를 제작하다가 적의 총탄에 순교하셨다. 현재는 제8대 최현규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제4성전까지 준공되어 있다.



초기의 목동감리교회 모습

【지역 내 금융기관(4개소)】

연번	금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목동새마을금고	목동중앙본로 114(목동 530-15)	2644-4592
2	강서농협 염창지점	목동중앙북로73(덕수프라자 101호) 507-2호	2642-9005
3	국민은행 염창지점	공항대로 612 (513-5)	2644-8002
4	외환은행 강서지점	공항대로 604 (507-1)	2644-9281

【지역 내 의약업소】

계	병원			의원				약국
	소계	종합	병원	소계	의원	치과	한의원	
41	1	-	1	27	9	9	9	13

「목2동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만든 사람들

【목2동 역사 서적 편찬위원】



위원장 이길훈



부위원장 최영철



감사 김종화



총무 강해순



위원 박홍득



위원 이명인



위원 이강협



위원 이응환



위원 이종영



위원 최영태



위원 황영주



위원 김영진



위원 이재우



위원 유성고



위원 이종운



위원 나종선



위원 김태현



위원 이종덕



위원 이상선



위원 정정기



위원 나중복



위원 이영옥



위원 김형철



위원 우중호



【목2동 역사 서적 편찬 실무위원】

동 장 김종신, 남대일

행정협력팀장 장덕향

주민자치담당 김순덕

실무총괄 천경숙

자료수집반장 이용희

자료정리반장 정춘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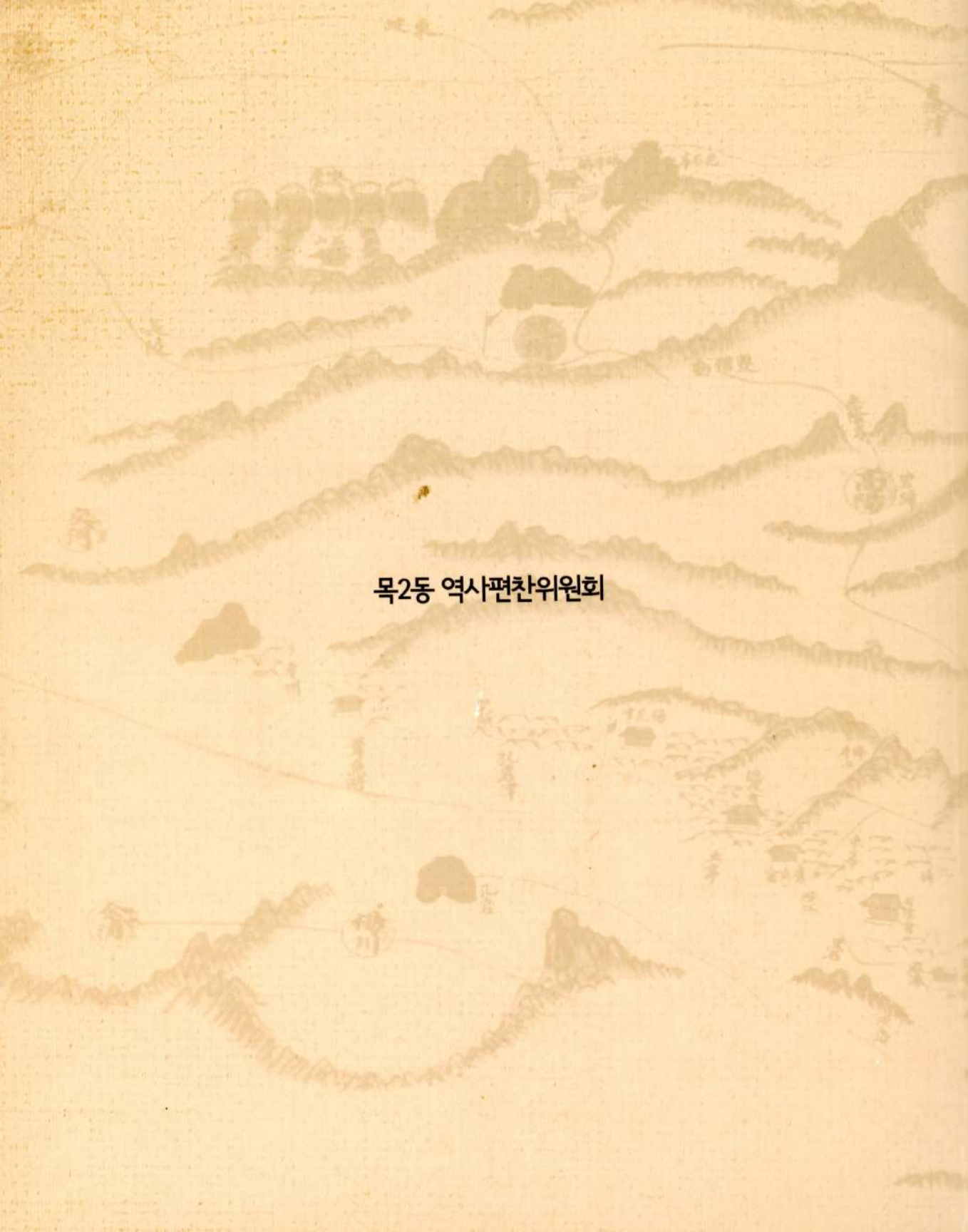
위원 최복자 이해원 김청자 정은혜

【후원한 사람들】

역사 서적 편찬위원, 목동새마을금고, 최영우, 최영국, 이주영, 목2동주민자치위원회

【참고문헌】

「강서구지」와 「양천구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이길훈, 이용환 위원 및 여러 주민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목2동 역사편찬위원회